

연구자료 2012-01

2011 

연구과제 요약집

K
I
C
C
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자료 2012-01

2011

연구과제 요약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 례

기본연구과제	1
육아지원인력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3
최윤경, 문무경, 원종옥, 김재원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9
문무경, 권미경, 황미영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15
김은설, 조혜주, 이보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23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29
김은영, 도남희, 조은경, 조혜주	
녹색성장시대 육아지원기관의 대응방안	41
이윤진, 양미선, 황미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45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51
장명림, 장혜진, 권미경, 한영숙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56
최윤경, 양미선, 도남희, 박혜원, 이진숙, 정윤경, 이보람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63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Susan Walker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69
문무경, 장혜진, 김혜원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75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81
이윤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86
장명림, 이정림, 최은영, 이세원, 정지현, 조유리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92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99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 분석(III)	110
문무경,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 김혜진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118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125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133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에진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141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김지형	
수시연구과제	149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	151
서문희, 김진경, 유해미, 조혜주, 김명순, 서영숙, 이완정, 한유미, 나종혜,	
이영환, 김혜금, 이미정, 오연주, 황혜정, 서소정, 성지현, 이유진, 황옥경,	
최혜영, 김선영, 박진옥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155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166
장명림, 서문희, 양미선, 김은영, 이윤진, 최윤경, 최은영, 장혜진, 권미경, 김명순, 김영옥, 나종혜, 문미옥, 문원자, 서소정, 서영숙, 성지현, 엄명순, 오경숙, 이미정, 이연승, 이완정, 이정옥, 정미라, 조부경, 지성애, 한찬희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개발	173
장명림, 안정은, 백승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개념 정립 방안	178
유해미, 김혜원	
만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 연구 - 「5세 누리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184
서문희, 장명림, 문무경, 양미선	
보육교직원의 효율적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188
김은설, 황미영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	194
최윤경, 김재원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	201
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부록	205
부록. 2011년도 연구과제 총괄표	207

기본연구과제

육아지원인력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최윤경, 문무경, 원종욱, 김재원

1. 서론
2. 유아교육·보육 교사인력체계의 변천 및 현황
3. 유아교육·보육 인력에 대한 인식
4.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에 대한 의견
5.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의 세부 실행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의 차이로 가시적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11년 공표된 「5세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취학 전 모든 만 5세 아동이 국가수준에서 일원화된 보육·교육과정의 동일한 서비스와 내용을 제공하도록 토대를 마련함.
- 본 연구는 수요자 학부모, 종사자 교직원, 전문가, 3개 집단의 유보통합안 논의와 다양한 의견에 근거하여 유보인력의 일원화를 지향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유아교육·보육 인력체계의 발전 과정 및 현황

- 유아교육·보육 인력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

다. 연구방법 및 설계

- 문헌연구
- 면접조사,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라.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 유보인력통합의 필요성 및 방안과 유보통합 효과를 알아봄.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은 각 국가의 고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과정에 유보인력의 양성과 자격 일원화를 매우 중요한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2. 유아교육·보육 교사인력체계의 변천 및 현황

가. 유아교육·보육 교사인력체계의 변천

- 1960~70년대 새마을유아원 이전 시기는 유아교육과 보육 양자 모두에서 교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체계와 양성과정을 명시하지 않음.
- 제5공화국 시기 새마을협동유치원(내무부), 어린이집(보건사회부), 농번기탁아소(농촌진흥청)가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된 가운데 문교부 관할의 공·사립유치원은 존속,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의 2원화체제를 유지함.
- 1990년대 초반에는 2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또는 보육 전공 이수자가 법적으로 상호 양성과정의 토대에 위치해 유치원 또는 보육 교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음.
- 양성과정의 경우, 보육교사는 1992년 이후로 한 차례 대학 양성과정 교과학 이수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고, 2014년부터 17과목(51학점)으로 시행될 예정임. 유치

원 교사는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의 총 62학점 이상에서 시작해, 2001년 2년제 양성 교과과정을 3년제로 전환하였으며, 2007년 총 72학점 이상, 그리고 졸업평점 환산 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으로 하여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자에게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교원양성과정으로 강화됨. 2010년에 유치원교사 이수과목 및 학점 상향을 제안한 상태임.

나. 유아교육보육 교사인력체계 현황

- 2010년 현재 교사의 수는 유치원에 36,461명, 어린이집에 204,538명으로 2001년 이래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음.
- 양성 교과목 구성의 차이는 보육교사의 총 3과목 이상,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교직이론과 전공 교과영역의 총 10과목 이상에서 차이가 있어, 향후 양성과정의 일원화 과정에 상호 보완해야할 교과목임.
- 2011년 호봉표에 의해 4년제 대졸 초임을 기준으로 기본급여(임금+제수당)를 비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호봉 1,392,280원, 민간어린이집 최저임금 98만원 이상으로, 국공립유치원교사의 4년제 대졸 초임 8호봉 1,510,100원에 비해 보육교사의 초임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유보교사 인력의 요건에 차이가 엄연하며 그 가시적 차이가 줄어들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유보인력의 나선형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교사의 질 향상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수요자 만족도 극대화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취함.

3. 유아교육·보육 인력에 대한 인식

가. 유아교육·보육 및 유보 인력에 대한 인식

- 유아교육과 보육 및 유보인력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더 우세함.

나. 유아교육·보육 및 인력 통합에 대한 의견

- 유아교육·보육 일원화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는 반반정도

의 비율을 보인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80%이상의 높은 비율로 일원화 찬성 응답이 높았음. 유보 인력통합의 일원화에 있어 학부모는 절반이 찬성을 하였으나 교직원은 67%, 전문가는 88%의 찬성률을 보임.

-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교사처우개선' 및 '영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음. 인력통합 시 수반되어야 할 변화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전문가 공히 '교사'와 '서비스 질제고'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내용의 보강' 측면도 높게 응답됨.

4.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에 대한 의견

가. 유아교육과 보육 인력통합 방안

- 유보인력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인력통합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 8개(유보자격, 최소학력, 자격체계, 양성교과목 및 학점 수, 임금, 승급 및 보수교육, 상호 경력 및 자격 인정), 주요 쟁점 3개(보육·교육 업무구분, 학력연한 단일화, 영·유아기 교자가격구분), 그리고 세부과제 6개(국가고시제 도입, 학과 중심제, 온라인양성과정, 고졸학력교사, 교사처우 대 전문성 향상의 우선선결과제, 5세 누리과정과 인력통합의 연계)에 대해 3개 집단의 의견을 조사함.
- 유보인력통합의 바람직한 달성기간에 대하여 각 집단 모두 5년 이내로 과반수가 응답하였으며, 실행과제로 교직원은 '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 균등화', 학부모는 '교사전문성 (균등)향상', 전문가는 '고졸학력교사의 제한'을 각각 1순위 꼽음.

나. 수요자(학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요구도 조사

- 현재 이용기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의 전문성' 및 '양질의 서비스'였으며, 충족되지 않는 점 중에서 기본교육과정 외 '교육내용의 다양화' 측면에 대한 수요자(학부모)의 요구(needs)가 강하게 나타남.
- 인력통합 시 기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구매의사가 높았던 부분은 (현재보다) '긴 이용시간'이었음.

다.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에 대한 수요자 비용편익분석

-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에의 욕구가 있는 지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조사를 통해 수요자 편익을 조사함으로써,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점검함.
- 사회적 순편익 계산 결과, 역할분담형(보육중심+유치원기능보강형, 유치원중심+보육기능보강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편익가정과 관계없이 매년 사회적순편익이 양(+)의 값을 나타내며, 자격기준통합형(자격기준이 유치원교사수준으로 상향조정)인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경우 양(+)의 사회적 편익이 계산되고 요구도가 높은 상위 2개 항목(특색 있는 체험활동, 초등예비교육)만 포함한 경우에는 음(-)의 사회적순편익이 계산됨.

5. 유아교육·보육 인력통합의 세부 실행안

가. 유·보 인력통합의 단중기 전략 개요

- 수요자(학부모), 종사자(교직원), 전문가 세 집단의 유보인력통합에의 구체적 의견을 세부항목과 쟁점별로 조사하고 수요자(학부모)의 인력통합에의 의견과 요구도(needs) 파악을 통해 향후 유보 인력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궁극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할 최적의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봄.
- 유보 인력통합은 통합교사의 자격과 양성, 보수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최적의 실행기간은 신규교사와 기존교사의 통합교사로의 자격 전환 및 취득이 안정화되는 5년 이내의 단·중기 설계로 봄.
- 각 집단의 의견이 상이한 가운데,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통합교사의 역할은 일원화된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으로 수렴됨이 잠정 결론지어짐. 이러한 「역할통합론」에 근거하여 육아지원인력 통합의 실행세부안을 제시함.

나. 단기 전략

- 단기 전략은 유보인력통합의 초석이 마련되고 향후 성패가 가늠되는 것으로, 우

선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인력통합의 목표와 구체적인 통합교사의 기준 제시가 요구됨. 신규교사와 기존교사의 두 경로로 나누어 제시 가능함.

- 통합교사의 도달목표 제시 외에 인력통합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교사수급계획이 마련되면, 신규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 보수체계의 일원화와 국가시험을 통한 기존교사의 자격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중기 전략

- 유보인력통합의 5년 시점은 유보인력통합의 구체적 목표가 달성되고 신규 통합교사가 4년제 공통교과과정에 의해 배출되는 시점으로, 향후 인력통합이 구체적으로 달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 60학점 이상의 최소 5단계 이상의 통합교사(안)가 향후 교사의 직무가 다변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보다 확장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사의 보수와 임금수준에 반영되어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통합교사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전문성이 향상, 동기화되는 보수체제와 직무, 자격체제와 양성과정이 확립된다면, (1안의) 차후 1급 국가시험의 존속 또는 확대실시여부는 고려 가능함.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문무경, 권미경, 황미영

1. 서론
2. 연구의 배경
3. 해외 공통교육보육과정 정책 및 사례
4. 공통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5. 공통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중·단기 전략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상 유사해졌으나 동일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전체 육아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5세 누리과정의 고시에 따라 만4세 이하 영유아의 공통교육보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이 필수적임.
-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된 교육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0세~만4세 중심의 현행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분석

- 해외 공통교육보육과정 정책 사례와 성과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0세~만4세를 위한 공통교육보육과정의 개발 방향 제시
- 0세~만4세를 위한 공통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현장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다.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검토 및 공통교육보육과정 사용 외국사례 분석
- 공통과정 개발 협의진 구성 및 운영
- 전문가(70명) 델파이 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618여명), 학부모(1,209명) 설문조사
- 자문회의 개최

2. 연구의 배경

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제개정 연혁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제·개정 연혁은 크게 제1차~제6차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제정 이전 시기와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개발 및 시행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현재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동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여 공통과정 개발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함.

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비교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관련법과 행정조직, 편성 및 운영 지침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논의 되어야함. 교육보육 대상 및 시수에 차이가 있으나 기관 및 일과 운영,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내용과 활동 영역, 평가내용 및 방법 등은 매우 유사함.

다. 5세 누리과정 개발

- 만 5세 공통과정 개발 TF 운영 →(공통과정 명칭 공모)→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2011.8.12)→5세 누리과정 고시(2011.9.5)→5세 누리과정 시행준비.

3. 해외 공통교육보육과정 정책 및 사례

- 영국정부는 아동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0~5세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을 개발함. EYFS는 기존의 기관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과정, 0~3세 교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개발한 것임.
- 호주에서는 2009년 7월 호주에서 0~5세까지 아동의 양질의 학습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EYLF(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을 공포함.
- 뉴질랜드는 1986년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관할업무로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후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영유아기 교육과정인 Te Whāriki를 개발함.
- 해외 공통교육보육과정의 통합 사례는 국가수준의 공통과정 마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임을 시사함.

4. 공통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가.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 설문에 참여한 원장 및 교사의 절반이상이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그에 비해 학부모의 40%가 5세 누리과정을 처음 듣는다고 응답함.
- 5세 누리과정 해당 자녀의 취원 기관 변경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학부모의 25%가 기관을 옮기고자 함. 이 중 절반 이상이 유치원을 희망함.
- 5세 누리과정시행에 대해 학부모는 '교육비용절감'을, 원장 및 교사는 '모든 만 5세 유아가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대함.

나. 공통과정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의견

1) 공통과정 개발

- 대다수의 원장 및 교사(73.4%), 학부모(80.4%)가 공통과정의 개발 필요성 인식함.
- 공통과정 개발 방법에 대해 세 집단 모두 만3~4세 공통과정을 먼저 개발한 후 0~만2세 보육과정과 연계하는 방향을 가장 선호함.
- 공통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는 일상생활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 구성에 의견을 일치함.
- 공통과정의 목적과 목표, 영역 구성에 대해 전문가는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되 만3~4세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교수학습방법으로는 놀이중심, 생활중심의 교수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가장 동의함.
- 공통과정 평가에 대해 전문가는 공통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준으로 관찰, 활동결과물 분석 등 기존과 유사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에 가장 동의함.

2) 공통과정시행

- 공통과정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2013년부터 시행하기를 원함. 특히, 전문가는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를 제안함.
- 교사연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는 공통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원장 및 교사의 절반이상은 실제적인 적용에의 내용을 다룰 것을 가장 원하여 차이를 보임.
- 공통과정 연수 담당 주체에 대해 원장 및 교사는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을 가장 선호함.
- 공통과정 실행 시 교사 지원에 대해 전문가는 교사 연수의 기회와 경비 제공을 원장 및 교사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김.
- 공통과정 실행 시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전문가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 및 보육학과의 졸업자로 제한하기를 원장 및 교사는 유치원교사2급(64.6%), 보육교사1급(49.4%)으로 제한하기를 원하여 그 차이를 보임.

3) 공통과정의 질 관리 및 평가

- 공통과정 질 관리 주체에 대하여 전문가는 교육청 주관의 모니터링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멘토링 장학을 실시하여 질 관리를 하는 방안
에 가장 동의함.
- 공통과정 평가 기준과 도구에 대하여 전문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지표에
서 교육과정 분야와 공통과정 운영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의견이 수렴됨.

5. 공통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중·단기 전략

가. 공통교육보육과정 개발 방향

- 0-5세 영유아를 위한 공통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
 -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교육목표를 설정함.
 - 유아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고, 교육방향 제시의 역할을 하여야함.
 -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에 포함할 교육내용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됨.
 - 교육과 보육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수용해야함.
 -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 영유아공통과정은 초중등 상급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야함.
- 공통과정의 체계(3-4세 공통과정안)
 - 1안: 현재 5세 누리과정과 일관되게 체계화하는 방안임.
 - 2안: 1안의 구성 체계를 연령별로 분리하여, 발달 수준별을 고려하여 제시함.
- 3-4세 공통과정 개발방향
 - 자주적이고 조화로운 전인격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함.
- 3-4세 공통과정 영역구성 및 내용범주
 - 5세 누리과정과, 현재 3,4세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초등 1학년 교육과
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영역구성 및 내용범주에 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함.

나. 실행계획 및 전략

-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관한 주요 이슈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고려함.
 -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정의하기
 -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일관성 유지하기
 -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 시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행 및 평가
- 이상의 이슈를 고려하여 3-4세 공통(누리)과정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제시함.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김은설, 조혜주, 이보라

1. 서론
2. 유아교육·보육의 행·재정 현황
3. 외국의 행·재정 통합 모형
4.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방향의 인식
5.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전략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행정 및 재정에 있어 교육 관련 부처와 복지 관련 부처로 분할됨으로써 행·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관련 분야의 현황 파악과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통합적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가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존 현황을 시설설치·운영체계 및 재정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통합 추진 방안을 단기 및 중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working plan)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유치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적 통합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이 나아가야 할 행·재정상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규명하여,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단기 및 중기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다. 연구방법

- 문헌 자료, 선행 연구 검토
- 외국의 행·재정 통합 사례와 현행 제도 조사, 비교
-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회의 개최

2. 유아교육·보육의 행·재정 현황

가. 전달체계 및 행정 인력

1) 전달체계

- 유아교육의 전달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음.
- 보육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짐.

2) 행정 및 지원 인력

- 유아교육 분야 행정 인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 공무원과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인력이 있고, 그 외 유아교육진흥원 근무 지원 인력이 있음.

- 보육 지원인력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및 그 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전달체계와 인력의 비교

- 유아교육 관련 인력은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음. 현재 전문직 공무원(187명)은 교사 195명 당 1명의 전문 멘토가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107명)의 경우 80개 유치원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732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보육 시설 수는 49개소임. 유아교육에 비해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의 지원 인력인 전문직 공무원 집단이 교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질적 측면의 도움과 보육이 가진 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원의 우월한 측면이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함.

나. 재정

1) 자원 구성

- 유아교육은 2008년 이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100%에 가까운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부분 운영됨.
- 보육의 경우는 유아교육과 달리 일반 회계에서 독립적인 예산을 둬.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로 구분되어 구성됨.

2) 재정 지출

- 유아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 사업은 크게 교직원운용 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또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포함됨.

3) 예산 구조

- 제도적 차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활용 구조에도 차이를 가져옴.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들(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지원, 장학,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이나 기능보강)에 쓰이는 예산은 양자가 매우 미미하며 특히 보육이 더욱 심함.
-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아동 당 질적 수준 제고 관련 예산의 비용을 산출해보면, 유아교육은 582,545원이고 보육은 81,645원임.

4) 부모의 비용부담

- 유아교육과 보육비용에서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은 각각 22.3%와 63.7%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5)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비교

- 재정 면에서의 통합은 재원의 흐름이 다르고 재정지출의 구조가 달라서 둘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재원체계가 완전히 변해야 함.

다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다르며 각 영역별로 다른 법령과 기준들이 혼합되어 있음.

라. 기관·시설 평가 체계

- 유치원 평가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지역정책에 맞는 자체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 연수 등을 진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통지표 제공, 평가위원 연수 지원 등 평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함.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며,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외국의 행·재정 통합 모형

- 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각 유형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노력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형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 유형이 있어 부모들의 선택권은 넓으나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임.
- 두 번째의 통합 형태는 스웨덴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분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분할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를 관할해 온 경우임.
- 셋째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영아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호를, 그리고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교육적 성격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의 형태를 들 수 있음.

4.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방향의 인식

가. 통합 필요성 인식

-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70%이상이 동의함.
- '동일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70% 이상이 동의함.

나.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 개선 의견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영유아 연령이 차이가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

에 대한 질문한 결과, '우선 개선 필요하다'는 39.2%,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38.0%로 비슷하게 나타남.

-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을 따르는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린이집을 학교 체계 속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음.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유치원은 3, 5, 8시간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 운영체제에 대해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에 70% 정도가 동의함.
-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시간별 차등지불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차등지불이 불가능한 현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남.
- 세계 여러 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 모형의 다양한 방식 중 우리나라 통합 추진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해 각 집단별로 질문한 결과, 스웨덴형이 가장 지지가 높았고 다음이 뉴질랜드형이었음.

5.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전략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전략 수립의 원칙

- 본 연구는 부모와 영유아의 이익 및 그들의 선호를 가장 먼저 고려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본 연구의 결론은 가치 지향적임.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과정에 광범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조사는 기존 어떤 연구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관련

자 집단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통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 단기 전략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사안	현행	개선전략
장학제도 확대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실시	-보육 장학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어린이집 장학 추진
이용시간별 비용책정	-유치원은 기본 반일제+종일제 추가 비용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일원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기본과 연장/야간까지 구분하여 비용 책정
비용 지원 기준 시간	-유치원은 반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은 종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도 기본 시간에 한한 지원 -유치원 지원비에 급식포함
비용 규제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유치원 교육비 자율 책정	-유치원에도 기본 시간에 대한 교육비 기준 제시
연간 일정 차이	-어린이집 1월 1일 시작 -유치원 3월 1일 시작	-두 기관 동일하게 3월 1일 시작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을 위한 중기 전략

- 중기는 3년 이후 6년 정도까지의 기간으로 초기 유·보 간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시기임.
- 보육이 교육부의 업무로 이관될 경우, 이에 관련된 법규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 가장 먼저 교육부에 '영유아보육과'가 설립되어야 하는 바, 이는 영유아교육국 하에 유아교육과와 영유아보육과(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지원과 등)를 같이 두어야 함.
-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일일 5~6시간 동안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반일제(연장제) 운영 교육기관으로, 만3~5세 유아들이 다닐 수 있음.
- 어린이집은 0~만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일제 보육기관으

로서,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취원하도록 함. 운영은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임.

- 새로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업무로 보육이 이양되면서, 모든 보육관련 재정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보육과의 담당 업무가 됨.
-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이 되어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종일반이나 이후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함. 즉, 5세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기준 보육료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혹은 무상지원)이 적용됨.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종일반비 지원 또한 과감하게 적용되어야함.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
4.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실태
5.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인식과 교육경험
6. 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그 동안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노력은 취약 아동 대상 안전관리 및 학대 예방과 요보호 아동 대상 생존·발달권 보장 위주여서 영유아의 보편적 권리는 간과된 경향이 있음.
-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등으로 아동은 보다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양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함.
-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과 기관 교직원의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과 요구도 등을 규명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 영유아 권리 개념의 이해
- 국내외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
- 육아지원기관 영유아의 권리 실태 평가를 위한 주요 차원과 세부 항목 도출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권리 영역별 실태 파악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교육 경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천 시 애로사항 등 규명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실시함.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가. 영유아 권리의 개념과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과 우리나라의 비준 및 이행 상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

나.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1)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서의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규정을 살펴봄.

2) 외국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규정

- 영국, 호주, 일본 육아지원기관의 영유아 권리 보장 관련 규정과 제도들을 살펴봄.

다. 선행연구

- 아동권리 실태 및 지표 개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육,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아동권리교육 관련 연구 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봄.

3.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영역별 평가 항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 중 일부를 평가에 활용함. 각 권리 영역별 개념 정의와 하위 차원,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가. 생존·보호권

- 건강과 영양관리
- 안전보호

나. 발달권

- 보육/교육활동 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보육/교육 활동 내용
-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의 관심도, 이해와 적용 수준
- 특별활동과 종일반 운영 실태

다. 참여권

- 보육/교육 일과 중 참여권 보장 수준

4. 육아지원기관 영유아 권리 실태

가. 생존·보호권 실태

1) 건강 및 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 위생·청결관리 수준은 급식관리와 건강관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유치원의 경우 영양관리는 평균 4.62점(만점 5점), 건강관리는 평균 4.46점(만점 5점)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2) 안전보호 및 관리

- 시설 안전관리
- 안전 보호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나. 발달권 실태

- 보육/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의 관심도, 이해와 적용
- 특별활동과 종일반 운영

다. 참여권 실태

- 어린이집(평균 4.41점, 만점 5점)에 비해 유치원(평균 4.51점, 만점 5점)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참여권 보장 수준은 공립/법인과 직장/법인 외 어린이집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 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5.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인식과 교육 경험

가. 영유아 권리 인식 및 실행 수준

- 육아지원기관 교직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별 인지 수준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권, 유치원의 경우 참여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아동권리 주요 원칙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 비해 실행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인지 및 실행 수준은 국공립과 법인, 직장/법인의 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나. 영유아 권리 교육 경험

- 육아지원기관 교직원 대상 관심도와 필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실제 영유아 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영유아 권리교육관련 교재 구비율은 전체 평균 약 38% 수준이며, 교재 종류는 주로 도서와 그림 영상자료임.

다. 영유아 권리 보장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영유아 권리 존중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부족이 지적됨.
-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 요구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축소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6. 제언

가. 기본 방향

- 영유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보호권 내실화와 참여권 확장
- 영유아 권리교육의 체계화
- 영유아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나. 정책 과제

- 영유아 권리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
- 보조인력 지원 강화
- 전문 강사진 확충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홍보 강화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김은영, 도남희, 조은경, 조혜주

1. 서론
2. 연구의 배경
3. 국외 육아지원기관 인력 제도 및 현황
4. 육아지원기관 인력 배치 및 운영 사례
5. 국내 육아지원기관 인력 배치 현황 및 인식 분석
6.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개선 방안
7. 정책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사를 비롯한 인적자원임. 여러 인적 자원 중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유무 및 그들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교사 이외의 어떤 인력이 육아지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규 및 보조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실

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규모별 인력 배치와 운영 개선안을 제안하며, 인력 배치 및 운영 개선안에 따른 조건 및 소요재정 규모를 제시해 보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관련 제도 고찰 및 관련 통계 분석
-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지원 현황 분석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배치 및 운영, 각 인력 역할, 인력 운영 사례 분석
- 인력 배치 및 운영 현황, 현장 관계자가 인식하는 문제와 어려움,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지원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운영 모형 제안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배경

가. 육아지원기관 인력 관련 제도

- 인력 배치 관련 법령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음.
- 인력 비용지원 관련 법령은 유치원 인력 지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교사 인건비 및 일부 연수경비)과 종일제 운영 지원으로 나누어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시설 운영자, 민간시설의 장애아통합교사, 시간연장 교사, 대체교사 등임. 그 밖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취사부 지원이나 취약보육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있음.

나. 육아지원기관 인력 관련 통계

□ 유치원

-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정교사, 준교사가 있으며, 직원은 보건교사와 일반직, 기능직, 보조직의 사무직원, 기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장자격자가 원감자격자보다 3배 이상 많고, 2급 정교사 자격이 1급 정교사 자격의 2배를 넘음.

□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은 모두 229,084명이며, 민간어린이집에 112,23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정 73,895명, 국공립 20,980명, 법인 17,368명, 직장 4,204명, 부모협동 398명 순임.
- 전체적으로 1급 보육교사가 80,20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급 70,437명, 3급 16,281 순임.

□ 연도별 변화추이

- 유치원은 2003년에서 2004년에 조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2004년에서 2005년에 조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유치원교사 수는 지난 10년 간 1.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 수는 지난 10년 간 3배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력 지원 정책 현황

□ 유치원

- 유치원에 대한 인력지원은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2010년 정부의 유치원 인력 지원 사업 규모는 약 5,676억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약 8,151억 원 규모로 약 44% 정도 증가됨.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2010년 공립의 13% 수준에서 2011년에는 16% 수준으로 높아짐.

□ 어린이집

- 보육재정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의 예산

으로 구성됨. 정부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취약보육과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음.

라. 선행연구

- 육아지원서비스 질 관련 연구와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연구를 원장 및 교사, 교육·보육지원인력, 기타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3. 국외 육아지원기관 인력 제도 및 현황

가. 미국

- 일반적으로 주정부 인허가를 받은 육아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각 주정부에서는 다양한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 프로그램들을 인가하는 규정 속에 교사자격 요건을 함께 명시하고 관리·감독함.
-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관리되는 유일한 육아지원인력 관련규정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관한 것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리케이 프로그램의 교사들은 주정부의 보육·유아교육시설 인가기준보다 훨씬 높은 자격수준이 요구됨.

나. 스웨덴

- 교육과학부에서 만 1~6세 영유아의 유아교육과 보육업무(예를 들어, 목표, 지침, 재정 등)에 대한 모든 중앙정부정책을 총괄함.
- 육아지원서비스의 유형은 만 1~6세 영유아 대상 피르스콜라 (förskola), 만 6~12세 아동 대상 여가활동센터 (fritidshem),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정보육제공자 대상 개방 피르스콜라(oppen förskola), 유아학교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 보육을 제공하는 가정보육시설(familjedaghem), 만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돕기 위한 유아학급(förskoleklass)이 있음.
- 가정보육사(child minder: family day care parents)는 특정 자격증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용됨. 국가가 표준으로 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과 학급 정원은 없으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 프랑스

- 프랑스는 3단계의 지방자치정부가 연합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육아정책 및 서비스는 교육계와 보육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담당 전문가는 유아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사로 나누어짐.

라. 일본

- 영유아기의 공적인 보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이 있음.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설치기준에,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기관의 직원 배치에 관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음.
-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소관의 학교로서, 대학·대학원까지의 교육체계 안에 규정되어 있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인가보육소는 “하루하루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육이 필요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제2종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됨. 보육사는 2001년부터 국가자격을 인정받으며, 보육사 양성 학교 및 기타 시설을 졸업하거나 보육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칭함.

4. 육아지원기관 인력 배치 및 운영 사례

가. 유치원 인력 배치 및 운영 사례

- 인력 배치 및 지원 현황
 - 유치원의 인력 배치는 기본적으로 원장, 원감, 교사, 강사로 구성되어 있음. 유치원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원감, 부장, 주임교사, 종일반과 보조 교사가 있음.
 - 유치원의 인력지원은 3세대 하모니, 종일제 강사와 종일제 보조원에게 되어 있고, 재정 지원은 급식 종사자, 에듀케어 강사, 3세대 하모니의 인건비 지원과 교사 처우 개선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인력 운영의 어려움 및 요구

-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교사들은 서류 업무 등과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3세대 하모니와 보조 교사는 보조 역할 내용과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행정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취사부는 주방의 물리적 조건의 어려움을 호소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장은 보조교사와 대체 교사 지원, 교사들은 3세대 하모니, 보조교사, 행정직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지원인력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처우개선 향상을 언급함.

나. 어린이집 인력 배치 및 운영 사례

□ 인력 배치 및 지원 현황

- 어린이집 인력 배치는 원장, 교사, 취사부 등이 기본구성으로 기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원감, 주임교사, 시간 연장반 교사, 장애 통합교사 등이 있음.
- 어린이집 인력지원은 보육도우미와 노인인력 특성화 교사 등에 대한 지원이 있음. 재정 지원은 인건비 지원, 처우 개선비, 지자체의 장려 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있음.

□ 인력 운영 어려움 및 요구

-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원장들은 경력 있는 교사를 보유하거나 보조인력 지원이 풍부한 경우는 만족하는 경향이 많았음. 인력 지원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 교사 처우와 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함.
- 교사들은 다른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지원, 효율적 업무 분담 등을 만족 요인으로 언급함. 사무처리가 많고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긴 것과 급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5. 국내 육아지원기관 인력 배치 현황 및 인식 분석

가. 유치원 인력 배치 현황

□ 원장 및 교사

- 원장 1일 평균 업무시간은 평균 14.9시간이며, 평균 월 급여는 3,501,000원으로 나타남. 원장 인건비 지원여부는 받는 유치원이 58.1%로 과반수임.
- 일반교사 직책은 기본과정 담당교사가 67.4%로 가장 많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9.3%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사 1급은 47.5%, 특수교사 2급은 70.0%로 나타남. 원장의 주업무외 업무는 서류작성관리 77.6%, 교사는 문서관리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일 평균업무시간은 교사 15.1시간, 특수교사 13.8시간, 월 급여는 교사 2,313,000원, 특수교사 2,331,000원임. 인건비 지원여부는 받는다는 응답이 교사 73.8%, 특수교사 85.0%임. 지원처는 대부분이 교육청임.

□ 교육지원인력

- 교육지원인력의 소지자격은 특성화 강사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 관련 자격이 83.8%, 보조교사는 자격 없음이 69.9%, 세대간지혜나눔 강사는 담당프로그램 관련이 72.6%로 나타남.
- 평균 월 급여는 특성화강사의 경우 시간당 55,300원, 보조교사는 월 875,000원, 세대간지혜나눔 인력은 월 249,000원임. 인건비 지원여부는 특성화강사와 보조교사는 지원받는 경우가 40~50%정도이며, 세대간지혜나눔 인력은 89.1%가 지원받음. 지원 금액은 특성화강사는 시간당 35,900원, 보조교사는 월 840,000원, 세대간지혜나눔 인력은 월 245,000원임.

□ 기타지원인력

- 기타지원인력은 취사부, 청소원, 행정원, 관리원, 버스기사, 간호사, 영양사, 3세대하모니 인력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기타지원인력 고용형태는 계약직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지원여부는 70%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음. 지원처는 대부분 교육청임.
- 1일 평균 업무시간은 취사부 11.1시간, 청소원 8.7시간, 행정원 14.1시간, 관리원 13.0시간, 버스기사 9.6시간, 간호사 12.4시간, 영양사 5.9시간이며, 3세대하모니는 주당 2.8시간임.
- 평균 월 급여는 취사부 805,000원, 청소원 675,000원, 행정원 1,685,000원, 관리원 1,687,000원, 버스기사 1,552,000원, 간호사 1,694,000원, 영양사 795,000원, 3세대하모니 441,000원임.

- 자원봉사 배경은 학부모 38.4%, 대학생 36.7%로 비슷하게 나타남. 주요 업무 내용은 수업보조가 40.4%로 가장 많음.

나. 어린이집 인력 배치 현황

원장 및 교사

- 원장 1일 평균 업무시간은 평균 15.7시간이며, 평균 월 급여는 1,826,000원임. 인건비 지원여부는 안 받는 경우가 65.3%로 절반 이상임.
- 보육교사 직책은 담임교사가 86.7%로 가장 많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3.1%로 가장 많고, 통합지원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61.4%로 가장 많았음. 주업무외 업무는 원장의 경우 서류작성관리가 96.8%, 보육교사의 경우 청소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육지원인력

- 보육지원인력의 소지자격은 특별활동 강사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 관련 자격이 79.7%, 보조교사는 자격 없음이 61.0%, 치료사는 작업치료사가 65.4%임. 특별활동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1시간이 59.1%로 가장 많았음.

기타지원인력

- 기타지원인력은 취사부, 청소원, 사무원, 관리원, 버스기사, 간호사, 영양사로 나누어서 분석함. 고용형태는 취사부, 사무원, 관리원, 간호사는 정규직이 거의 50%였으며, 청소원은 시간제가 60%, 버스기사, 영양사는 계약직이 30%로 가장 많음. 인건비는 취사부만 44.2%가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90% 이상이 지원받지 않음.

다. 인력 운영 및 배치에 대한 인식

- 원장과 교사의 인식에 대해서 인력수의 충분성, 인력 배치의 적절성, 인력 업무 분장의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파악함.
- 원장과 교사 모두 인력 수나 운영이 다소 부족하고 업무분장 형평성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인력 운영 및 배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장의 경우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 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으로 나타남.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장은 인력비용 지원, 유치원 교사는 종일제 담당 정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많음.

라. 기관의 서비스 질과 인력 관련 변수와의 관계

- 기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관련 변수들을 파악한 결과, 유치원 원장은 설립유형, 인력 업무의 형평성, 행정원 배치여부, 인력수의 충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인건비 지원여부, 인력 업무의 형평성, 청소원 배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인력 배치의 적절성, 교사 재직경력, 인력 업무 형평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

6.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개선 방안

가. 기본 원칙

-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모형에서는 인력의 자격과 전공, 배치, 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른 고용형태 정도를 제시할 것임.
-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모형은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안할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력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통합된 모형이 아닌 각각의 인력 운영 모형을 제안하되 가능한 두 기관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 인력 운영 모형에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설립유형과 지역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설명을 할 것임.
-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모형에서 현재의 규정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추가인력에 대한 소요재정 규모를 기관수와 인력에 대한 통계수치를 기초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단순 계산을 산출할 것임.

나. 육아지원기관 인력 운영 모형

1) 유치원 인력 운영 모형

- 모형 제시의 규모 기준은 60인으로 하며, 읍면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1학급 극소규모의 예를 추가로 제시함.
- 원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1인을 배치, 중규모 이상에는 원감을 둠. 교사는 현 규정을 기준으로 1학급당 1명의 정교사를 배치하되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하향 조정, 종일제 교사는 학급당 1인의 교사 배치를 제안함.
- 만 3세 학급(1인), 만 4, 5세 학급(2학급당 1인)에 보조교사 배치를 제안함.
- 취사부는 극대규모에 3명, 대규모에 2명을 배치하며, 중규모에는 2명을 배치하되 1명은 시간제로 함. 소규모 이하는 1명을 배치하며, 유치원당 1인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행정원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과 겸직발령을 내며, 대규모 이상의 경우 정규직 1인, 중소규모에는 시간제 행정직 배치를 제안함.
- 간호사, 영양사, 관리원은 대규모 이상에 1인 배치, 중규모 이하의 경우 간호사와 영양사는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 배치인력 활용을 제안함.

2) 어린이집 인력 운영 모형

- 모형 제시의 규모 기준은 50인으로 하며,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극소규모 예를 추가로 제시함.
- 원장은 단독배치, 원감은 영유아수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1인 배치를 제안함.
- 교사는 현 규정을 기준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근거하여 1명의 정교사 배치, 보직교사는 대규모 이상에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주임교사 2인, 중소규모는 주임교사 1인 배치를 제안함.
- 유치원 종일제 교사처럼 오후 전담 교사를 두는 것을 제안함. 보조교사는 2반당 1인 배치, 자격은 최소 보육교사 3급 이상으로 함. 단 읍면지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으로 30시간 이상 영유아 이해 관련 연수 받은 자에 한함.

- 취사부는 극대규모 3명, 중대규모 2명(1인은 시간제 가능), 소규모 이하 1명을 배치할 것을 제안함. 위생원은 대규모 이상 2인, 중소규모 1인 배치하되 소규모는 시간제 가능함.
- 사무원은 대규모 이상 1인, 중규모 이하 시간제 배치 제안함. 간호사와 영양사는 현 규정대로 대규모 이상 1인 배치, 관리원도 대규모 이상 1인 배치 제안함.

다. 소요재정

- 유치원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였던 종일제 교사, 교육지원 인력인 보조교사, 기타지원인력인 행정원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따라 배치할 경우 필요한 재정을 산출함.
-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였던 원감, 오후전담교사, 보육지원인력인 보조교사, 기타지원인력인 사무원과 위생원(청소원)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따라 배치할 경우 필요한 재정을 산출함.

7. 정책제언

가. 인력 운영에 대한 제언

-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
- 질 높은 교사 배치
- 종일제 및 오후 보육 전담 교사 배치
- 지원 인력 배치
- 상황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 융통성 있는 인력 활용

나. 재정 지원에 대한 제언

- 교사 인건비 지원

- 농어촌 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확대
- 지원 인력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 지원 인력 자격 기준 강화 및 연수 지원

다. 간접 지원에 대한 제언

- 유아교육이나 보육 관련 전공 대학생 활용
-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
- 민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녹색성장시대 육아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이윤진, 양미선, 황미영

1. 서론
2.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현황
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생활 관련 현황
4. 육아지원기관의 탄소 발자국
5.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성장정책 활성화 방안
6. 정책방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녹색생활을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지원기관 차원에서도 녹색성장교육이나 시설·설비 측면에서 녹색성장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녹색성장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간주하여 녹색교육 실시 현황과 이들 기관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배출 등 녹색생활 실천 정도를 파악하여 녹색성장시대에 육아지원기관의 역할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 설문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
-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2.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현황

가. 녹색성장교육 관련 연수 현황 및 의견

- 녹색성장교육이나 환경교육 관련 연수경험은 원장 79.3%, 교사 90.2%가 없다고 응답함. 녹색성장교육이나 환경교육 관련 연수의 필요성은 원장 98.1%, 교사 9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나.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교육/환경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과반수의 원장과 교사가 응답함.

다. 녹색성장교육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의견

- 녹색성장교육의 법적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원장, 교사가 응답함. 녹색성장교육의 법적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담당자로는 원장은 '담당교사'를 교사는 '외부전문강사'를 1순위로 꼽음.

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생활 관련 현황

- 절전 영역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실내 냉난방 적절 온도 유지하기'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실내 전등 LED 전등으로 교체하기'였음.
- 재활용 영역에서는 '음식물, 재활용 등 분리배출하기'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폐식용유 모아 재생비누 사용하기' '1회용 위생장갑 등 사용자제하기' 항목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친환경 영역에서는 '양치 시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교육계획안, 안내문은 되도록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기’가 가장 낮았음.

- 기관운영 시 녹색생활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함’이 원장 63.0%, 교사 71.3%로 매우 필요함보다 더 많이 응답했지만, 대체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육아지원기관의 탄소 발자국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탄소발자국계산기를 사용하여 600개 육아지원기관의 CO₂ 배출량을 도시가스, 수도, 전기, 음식물 쓰레기양으로 계산한 결과를 제시함.

5.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녹색성장정책 활성화 방안

-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원장 63.0%, 교사 71.3%로 나옴. 기관 운영 시 그린카드나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94.5%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육아지원기관 대상 녹색성장관련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응답했지만, 참여 여부에서는 ‘반드시 참여’보다는 ‘지원정도에 따라 참여’가 더 많이 응답해서 실제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정부의 지원정책은 재정지원이 1순위, 프로그램 개발 2순위로 나옴.

6. 정책방안

- 정부발행 녹색성장관련 문서에 육아지원기관 명시 필요
- 육아지원기관의 녹색성장지원정책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
- 청결 vs 녹색생활: 반환경적 평가지표는 수정 필요
- 기존의 환경교육과 차별화 된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녹색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CO₂ 감소노력이 경제적 보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
- 육아지원기관의 녹색시설화
- 원장 및 교사가 녹색성장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수교육과정 개편 필요
- 관련 법령에 영유아 및 육아지원기관 용어 삽입 검토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다문화가족의 특성
3.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
4.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6. 정책제언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업 수혜와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그 목적을 둠.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확대 추이, 다문화가족 및 자녀 전국 분포 등을 분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관련 정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실태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심으로 제공되는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와 효과 파악하고, 수요자 특성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요구도 파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 및 효과를 파악하고, 수요자 특성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요구도 파악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각 부처 통계 검토, 인터넷 검색 등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환경, 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사업별 인지, 수혜 및 결과,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센터 방문교육 담당자, 방문교육 지도사,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 실시, 과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2. 다문화가족의 특성

-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가구 특성, 부모 특성, 아동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평균 가구원 수는 4.3명, 평균 자녀수는 1.64명으로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임.
 - 부인은 평균 31.3세, 남편은 12살 많은 43.1세로 부부 간의 세대가 다름. 남편의 경우 재혼이 12.7%이며, 14.4%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9.0%가 매일 술을 마시고, 20.4%는 주 2-4회 술을 마심.
 - 결혼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임. 특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초등 이하 학력자가 각각 28.8%, 17.1%, 12.4%임.
 - 결혼이민자 어머니는 자녀발달 상태에 대해 5점 평균으로 신체발달 3.05, 언어 발달 3.03, 인지발달 3.08, 사회성발달 3.13으로 보통 정도라도 평가함.

3.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를 기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시댁식구 57.8%, 다문화관련 기관이 13.7%로 많음.
 -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댁식구가 37.4%로 가장 많고, 친정식구는 12.7%임. 반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7.7%로 높은 수준임.

- 결혼이민자 여성의 34.8%가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유는 자조모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 모임에 대한 정보 부족 18.4%, 모임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11.9%로 나타남.
- 부모역할에 대해 5점 평균으로 놀이하기 3.85, 음식 해주기 3.93, 문화공간가기 2.70, 이야기하기 3.86, 책 읽어주기나 공부 봐 주기 3.49점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가장 부족함.
-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역량 대처 중 잘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14.5%임.
-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5점 평균으로 양육 혼란 3.27, 짜증 2.52, 장래 걱정 3.53으로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양육 시에 혼란스러움과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자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한 결과, 대학교 52.5%, 대학원 42.9%로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희망함.
- 자녀 중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54.6%로 이중 5% 정도는 어학 교사에게 배우고 있음. 한편 82.2%가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함.

4.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로 아이가 아직 어려서가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가 12%, 추가 비용 부담이 4.4%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기관에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65.5%로 절반 이상이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글교육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방과 후 특별지도가 41.7%로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독서지도, 멘토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등이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없다는 응답이 24.5%임.

- 자녀가 기관 이용 시 어려움에 대해 준비물 준비가 5점 평균으로 3.02로 가장 높고, 알림장 해독 2.80, 가정통신문 해독이 2.76이고, 교사/원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2.18로 가장 낮음.
-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애로는 준비물 준비가 5점 평균 2.95, 가정통신문 해독이 2.75로 학교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있다가 24.5%를 차지함.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66.3%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 교육 8.8% 순으로 나타남.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부모와 자녀 지원사업의 이용과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2가지 부모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는 부모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의 두 가지 방문교육사업이 62%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대부분의 사업 인지도는 30%대이며, 육아정보 나눔터와 멘토프로그램은 각각 24.3%, 19.8%임.
 - 부모지원사업 이용 경험은 부모방문교육 42.3%, 한국어방문교육 36.6%로 가장 많음.
 - 부모지원사업 중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는 한국어 방문교육이 5점 평균으로 4.59, 부모방문교육 4.53으로 가장 높음.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방문한국어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자녀 가족나들이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음. 방문부모교육은 거주기관에 상관없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음.
 - 자녀 대상 사업도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55.3%, 48.0%로 인지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39.9%, 이외 이중언어교

실, 무료 건강검진, 학습지도, 한국 문화이해교육, 상담 및 치료, 무료 방문학습지가 20%대이며, 멘토프로그램이 15%, 예체능 교육 8.7% 수준임.

- 자녀지원사업 중 견학 및 체험활동과 자녀생활방문교육이 47.6%, 45.6%로 가장 높고, 멘토, 한국어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무료건강검진, 한국문화이해 30% 대, 이주언어교육 18%로 가장 낮음.
- 자녀지원사업 중 자녀양육 도움 정도는 1순위 응답 자녀생활지도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이 각각 15% 수준으로 높음.
-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자녀 서비스는 1순위 학습지도와 무료 방문학습지가 4위 이상이지만 1, 2, 3 순위를 모두 합해 학습지도를 지정한 비율이 가장 많음.

6. 정책제언

가.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 효율적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센터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여건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방문서비스 강화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나.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자녀 학습지원, 문화, 정서지원, 이중 언어교육 강화
- 중도입국자녀도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기존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개발·보급

- 아동 이용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다. 부모 지원체계 강화

- 부모 역량 강화
-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 결혼이민자 지지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 강화
- 결혼이민자 교육, 취업훈련 기회 확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장명림, 장혜진, 권미경, 한영숙

1. 서론
2. 선행 연구 분석
3.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현황
4.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실태 및 요구 분석
5.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방안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정책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 태도, 능력, 인식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교육 및 적응 실태 사례
 -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제안

나. 연구 방법

- 정부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함.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
- 교사와의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함.
- 육아지원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찰 사례 분석을 실시함.
-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2. 선행 연구 분석

가. 다문화가정 영유아 양육 및 교육 실태 분석

- 다문화가정 영유아 양육 및 교육실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연구,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와 학부모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함.

3.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 현재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나.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 시·도청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책은 실태조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원, 본인 및 배우자 교육, 다문화 이해, 직능 교육 및 취업 지원, 행사 및 축제로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시·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정책 현황은 수혜 대상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비해서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정책은 저조함.

4.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실태 및 요구 분석

가. 육아지원기관 교사 대상 설문 분석

-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라는 비율(45.8%)이 가장 높았고, 일반 가정 영유아를 포함하는 시민 교육(42.1%), 다문화 영유아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10.1%)의 순서로 나타남.
- 교사들의 다문화 관련 지식을 개념, 다문화 가정 형성 및 특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 다문화 교육 요소 및 방법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확인함.
-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다문화 수용력, 새로운 문화에의 호기심, 편견 및 선입견 거부 의지, 다문화 차별성, 다문화 관련 질문 격려,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강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확인함.
-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능력은 다문화가정 유아 학습 지원 정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수방법 능숙 정도,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촉진 정도,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 부모 지원 정도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확인함.
- 56.3%의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문화이해, 교육 방법으로는 이야기 나누기가 가장 많았음.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해서 70.3%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용 자료(45.4%), 실물 자료(45.1%), 시청각 자료(40.1%)의 부족을 꼽았음.
-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어려움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31.2%)을 가장 어렵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교육 수업 자료의 부족(25.0%), 다문화

관련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15.3%) 등을 보고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해 일반 가정 영유아의 51.2%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 가정 부모의 60.2%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해 편견은 있으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기관 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94.9%가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언어 발달 지체에 대한 의견이 51.5%로 다른 발달에 비해서 지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 교사의 연수 현황 및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 연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 참여 현황, 만족도 효과,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연수 내용 중심으로 질문함.

나.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장 관찰 및 교사 심층 면담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기관 적응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 대상으로 현장 관찰을 실시함. 관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루어졌으며, 관찰 내용은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유아의 언어, 사회성, 학습 발달 상태 등임.
- 관찰한 유아 10명 중에서 심각하게 적응을 못하는 유아는 전혀 없었으며, 기관 별이나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대해 다문화로 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연수를 받은 교사는 연수 후 다문화 편견해소, 다문화 가정 이해에 대한 증진, 교사로서 다문화 교육의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는 학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부모가 다문화가정 출신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꼽았음.

5.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방안

가.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사의 인식 제고, 자료 및 연수 지원

- 다문화교사는 스스로 '우리'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는 관점을 취약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잠재능력이 많은 창의적 유아의 관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다.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일반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필수적임.

라.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유도

- 부모의 사회적 편견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같은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모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함께 고려함.

마.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포괄적·통합적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개별 정책의 다발적 행사 중심의 지원보다는 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기관들이 함께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최윤경, 양미선, 도남희, 박혜원, 이진숙, 정윤경, 이보람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4. 다문화가족의 특성
5.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6.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 유형
7. 다문화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기준 결혼이민자 141,654명, 외국계주민 1,265,006명의 분포를 보임.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이 중 만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93,537명은 전체 다문화아동의 약62%를 차지함(행정안전부, 2011).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과 자녀 지원 사업이 전국단위에서 보다 다양한 전달체계와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 성인 및 아동 세대간 지원의 균형과 체계성이 보다 확보되고, 아동의 관점과 시각이 반영되어 결혼이민자 성인 중심에서 자녀세대의 발달 요구에 적합한 정책설계로의 확장과 전환이 요구됨. 여전히 취학 전후 다문화아동의 생애초기 발달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는 부족함.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자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하여 이것이 타당한 차이인지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아동 지원의 맞춤형 설계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생성하고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다문화 선행연구 고찰
-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발달 지원정책 현황 검토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생태학적 특성
-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 다문화아동의 발달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다. 연구방법 및 설계

- 문헌연구
- 설문조사와 발달 검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원 간담회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결혼이민자 가족과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다문화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함.
- 본 연구의 조사대상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표집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를 신청한 경우와 주위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눈덩이표집으로, 본 조사의 발달실태 자료는 전국 다문화가족과 영유아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제한이 있음.

2. 이론적 배경

가. 다문화아동 발달 연구

- (언어발달연구) 다문화 가족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언어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지연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음.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아동과의 그 편차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 (인지발달연구) 다문화 아동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연이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지식 습득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사회정서발달연구) 우리나라 다문화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분노-공격적 행동 특성과 불안-위축행동 특성이 높게 나타남. 언어발달 지연과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문화적 부적응이 기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정서발달에 어려움을 보임. 언어발달의 지연이 취학 후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비동조성, 우울 및 공격적 사회성의 표출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됨.

나.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가정환경 연구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혈연에 의한 돌봄, 특히 동거 조부모의 양육지원(19.5%)이 일반가정(7.2%)에 비해 높아 다문화 가정의 조부모 양육지원이 중요하며, 시댁 식구와 이웃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최윤경, 2010).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영유아발달을 논의할 때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의한 보편적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으로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구분하는 게 필요함. 사실상 이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남(Johnson, 2000).

3.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현황

-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자녀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함. 외국계 주민 자녀는 총 151,154명으로 2008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관련 제도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이들의 보육 및 교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함.
-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시행됨.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과 사업은 생활 지원사업, 언어·인지·학습 발달 지원사업, 사회성·정서발달 지원사업, 신체발달·건강 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시행됨.

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외국사례

-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강력한 동화 혹은 배제의 기초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으로 변화함. 독일과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더 이상 다문화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4. 다문화가족의 특성

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혼이민자가정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이 경우에 부모 모두 출신국이 외국)은 8.1%였음.
- 조사대상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특성으로 육아지원기관 및 공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현재 일정하게 다니고 있는 기관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률이 아동 44.9%, 부모 71.0%로 다문화아동에 비해 부모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음.

나.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3.01)-육체적(2.45)-심리적(2.27) 스트레스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4점 척도 평균 2.58점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님.
- 모의 양육행동은 4점 평균 3.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발달·교육과 규제·지도 영역의 모 양육행동이 많음.

5.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가. 다문화아동의 건강 및 신체발달

- 모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아동(91.2%)이 장애나 질병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은 13%였음.
- 아동의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비만도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82.8%)이 정상으로 분류되었고, 비만 6.7%, 허약 4.9%로 분류됨.
- 다문화아동 모의 95.0%가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았다고 응답함.
-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과 모의 우울과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남. 이는 모가 우울하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을 의미함.

나.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전체 약 78%로 다수였으며,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약20%였음.

- 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은 대체로 모가 교사에 비해 아동의 한국어 능력을 좋게 평가함.
- 어휘력 검사(REVT) 결과, 다문화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에 차이가 없었음. 언어발달 지체로 조사된 아동은 약 40%였으며, 정상범주 약45~47%로 조사됨.
- 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39), 모 표현어휘력(.23), 모의 체류기간(-.10)이, 아동의 수용언어 발달에는 아동의 인지발달(인지처리과정)(.39), 모의 표현어휘력(.17), 모 연령(-.12), 아동의 성별(여아 .1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다문화아동의 인지발달

- 인지발달 검사(K-ABC) 결과, 순차처리 점수(평균 100.25점)보다 동시처리점수(평균 108.72점)가 약간 더 높았으며, 이를 합산한 인지처리과정 점수는 평균 105.70점으로 나타남.
- 모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순차처리에는 아동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수준, 부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시처리에는 아동의 수용언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학력, 아동의 성별로 나타남. 인지처리과정에는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아버지 학력으로 나타남.

라.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

- 모가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이 증가하고, 내재적 문제행동도 증가하나, 외현적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친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발달이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하며, 문제행동은 별로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마. 교사와 기관장이 평정한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실태

- 기관장과 교사가 평정한 다문화 아동의 발달은 언어, 인지발달 및 학업수행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 약간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음.

바. 다문화아동의 발달 영역 간 상관관계

- 신체발달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특히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인지와 언어발달이 사회정서발달 가운데 외현적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 유형

-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실태를 조사된 발달수준과 발달영역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유형화 함.

7. 다문화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발달유형별, 발달영역별, 발달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나누어 제시함.
- 다문화가족과 아동은 동질적 취약계층이 아닌 변이와 차이를 내포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므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다변화하되, 우리나라의 다문화아동 지원정책은 이제 그들의 다양성과 차별화가 양극화의 격차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함.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Susan Walke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부모특성별 교육현황
5.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6.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의 개발
7.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나 모가 집에 있는 가정과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 도시 가정과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부모 상황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기본적인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활발히 실행할 수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실행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내용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특성별로 구분된 부모집단(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함.
- 국외 우수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교육 제도 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문헌자료를 검토하며, 일부 국외 우수 부모교육 제도 사례 자료를 수집함.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본 교육내용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포커스집단 면접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4. 부모특성별 교육현황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는 아동발달영역별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 센터의 부모교육은 방문지도사의 방문교육과 센터 집체교육의 두 가지가 있음.
-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국가 주도 센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설립하고 여성재단에 운영 위탁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기능강화교육(일명 가족교육사업)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 부모교육임을 알 수 있음.
- 2011년 7월 현재 전국 총 60개의 보육정보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정보 제

공과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각 유아교육진흥원별로 다양한 학부모 연수가 실시되고 있음. 대부분 해당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 부모교육 중심으로 구성됨.
-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로 교육청 사이트에 자녀교육을 위한 자료를 탑재하나, 일부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등을 학교에 개설하기도 함.

5.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부모교육 참여 실태

-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부의 비율이 모의 비율보다 적었음.
- 현재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임신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26.4%가 있다고 함.
- 부모특성별로는 맞벌이와 저소득 부모는 특히 1회성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참여한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부모 특성에 상관없이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경험을 살펴보면,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맞벌이 부모),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발달에 대한 이론(한부모와 저소득층 부모),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다문화 부모),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농어촌 부모)에 관한 부모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2.7%)가 많았음.
-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62%가 있다고 응답함. 이에 대해 가구 특성별로는 맞벌이 가정(71.2%)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음.
-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시간 부족'(31.00%), '자녀들의 방해'(17.2%),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98.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94.4%가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음. 반드시 참여하겠다고는 응답자 중 다문화와 농어촌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향을 나타냄.
- 향후 부모교육으로 배우고 싶은 1순위 내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15.5%,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10.5%로 조사되었음.
- 부모교육의 기간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는 단기교육으로서 1~5회 이내로 이루어지는 방식(54.1%)이 압도적이었음.
- 부모들이 선호하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평일 오전(30.4%)이며 다음으로 주말 오전(20.7%), 주말 오후(20.6%)가 비슷한 비율을 보임.
-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46.9%)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음.
- 부모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30.0%)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90%의 부모가 그러하다고 동의함.

6.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의 개발

-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음.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함.
 - 일반적인 영유아 부모뿐만 아니라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대상의 맞춤형 부

모교육 내용 및 지도의 주안점을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교육 계획 시 방향성 제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

- 관련 학계의 현직 대학 교수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조사의 참여자 수는 123명임.
- 제1차 델파이조사는 총 5개의 개방형 응답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의, (2)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3)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내용, (4) 5개 부모특성 집단별 중점 부모교육 내용, (5) 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임.
- 제2차 델파이는 5점 리커드식 척도를 이용하여 동의정도 표하게 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 항목까지 나열함.
- 제3차 델파이는 2차에서 상위 70%의 선택지 수를 다시 3개 각 문항(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부모집단별 중점 교육내용)별로 의견 수렴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4가지의 영역 (1) 부모역할, (2) 영유아발달, (3) 가족의 이해, (4) 자녀양육 및 지도로 구성됨.
- 최종적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인 기본과정과 부모특성별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선택과정 등 2 가지로 구성됨.

7.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활용 전략

- 본 연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유도와 부모교육 경험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음.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발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부모교육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기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함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한 온라인 부모교육을 과목(영역/내용)별로 개설하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 교육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 책임을 질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담당자가 있어야 함.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 장점들을 매체 광고나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육아지원기관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전문가 활용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다.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 직장 교육
- 부모교육 핫라인 전화 개설(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대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문무경, 장혜진, 김혜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재외동포 거주국의 육아지원 정책과 현황
4.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가치관
5.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6. 재외동포 육아지원 방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외동포의 수나 모국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재외동포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유형에 따른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 영유아를 육성,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재외동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파악
- 우리나라 재외동포 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검토·분석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육아지원정책 파악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거주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비교·분석
- 재외동포가정의 육아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 제시

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는 현지의 육아지원기관(베트남 총 9개, 우즈베키스탄 총 5개)을 방문하여, 영유아의 교육 현장과 기관 생활 및 활동을 관찰함.
-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총 1,200명 및 19개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 조사 실시
-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및 교사 심층 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 이론적 배경

가. 재외동포의 현황

- 2011년 재외동포는 726만 8,771명으로 90%가 중국,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독립 국가연합에 거주하며, 다수가 체류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재외동포가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재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의 정규과정을 가르치는 한국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한인 운영의 사립기관, 재외동포가 자율적으로 주말에 운영하는 한글학교, 현지 학교로 나눌 수 있음.

나.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

- 재외동포교육 관련법 및 지원체계, 지원정책 및 관련 주요 사업 현황 파악함.
- 해외한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도 예산은 423억 가량으로 전년 대비 100억 정도 감소함.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은 저조한 편임.

다. 선행연구

-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가와 지역의 현지 사정 및 조건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함. 파견공무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국가차원의 재정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

3. 재외동포 거주국의 육아지원 정책과 현황

가. 베트남

- 베트남의 육아지원 기관은 공립, 민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공립기관 월 평균 \$25, 사립기관 \$75-\$250의 학비를 지불함.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높은 사립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함.
- 취학전 교육의 형태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하며, 취학 전 만 5세의 원아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9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임.
- 베트남은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아교육을 산업화·현대화하는 추세이며, 육아지원기관은 매년 증가하며 2011년 현재 12,908개이며 공립은 64.5%, 사립은 35.5%로 나타남.
- 2·3·4년제 사범대학의 유아교육학과에서 유아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으로 나타남. 훈련받은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함.

나.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지원기관은 국공립, 민립, 가정시설로 구분되며 정부 및 각 지방 자치제, 사립기관,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취학전 교육의 형태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하며 유아교육은 교육부(Ministry of Public Education)의 유아교육 담당부서가 관장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정부 당국의 유아교육의 관심 저하 및 사립화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은 급속히 감소했으며 2009년 유아 취원율은 26.2%였으며 취약 계층 유아의 취원율은 5%로 나타남.
-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는 20%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과정만 수료한 종사자들이 77%로 집계됨.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9명이나 이는 취학 전 교육기관의 수와 유아 취원율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임.

4.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가치관

가. 부모의 자녀 양육관

- 거주 한국 가정의 경우, 한국에서보다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양육함.
- 한국 거주 가정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양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거주 한국가정은 한국학교 유치원이나 한국유치원의 선택률이 높았으나, 한우나 한베 가정의 경우 한인 유치원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선택함.

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한국 가정 부모의 개인적 행복 추구(배려,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행복(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보다 높게 나타남.

다. 자녀의 정체성

- 거주 한국 가정과 한베, 한우, 고려인 가정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이 상이

함.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베트남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정서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현지에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됨.

- 고려인 가정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주 3, 4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및 한국어보다는 현지의 문화나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망이 큼.

5.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가.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실태

- 거주 한국 가정의 자녀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한베, 한우 가정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한베, 한우 가정에서는 교육에 대해 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모가 한국 정서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짐. 부의 육아 참여가 한국에서보다 더 적극적임.

나.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관련 요구

- 수업료 등의 재정적 지원이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영유아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원함.
- 부모 교육이나 관련 자료를 강의, 인터넷 등으로 접할 기회를 필요로 함.
- 재외동포의 육아지원기관 선정을 보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부모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위계적으로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함.

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관련 요구

-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현지 육아지원기관의 공통적인 요구는 수업료 지원, 교사 파견, 교직 경력 인정, 현지 교사 연수, 교육·교재 지원을 포함함.

6. 재외동포 육아지원 방안

가. 정책 방향

- 생애초기부터 재외동포가정 영유아의 민족적 유대감 강화와 제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둠.
- 한국 국적의 재외동포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양육 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육 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내의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
- 재외동포 영유아 및 가정의 육아지원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여러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요구함.

나. 세부 정책과제

- 저소득 재외동포 가정에 교육비 지원 기준 설정 및 지원 활성화
- 재외동포 영유아 이용 육아지원기관의 질 향상
 - 적합한 시설환경 개선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 보급시스템 구축, 파견한 인교사의 안정적 수급 및 현지인 교사 연수와 활용 등
-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 재외동포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 재외동포 영유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강화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1. 서론
2.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3. 국내외 양육수당제도 현황
4.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
5. 정책 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영아 양육지원 중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되어왔음. 그럼에도 정부는 양육수당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보육에 대한 현금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양육수당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양육수당 지원 범위와 급여액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 시설 및 기관 미 이용 아동의 양육 실태 및 수요
 - 국내외 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시사점
 -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 분석
 - 양육수당의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 모색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좌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함.

2.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함.

3. 국내외 양육수당제도 현황

가.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한계점

-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정책
- 양육수당 이외에 장애아동수당,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입양자녀 양육수당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정책
- 크게 일시금과 월 지급 수당으로 구분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 지역과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금 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추세임.
- 한계점
- 중앙정부 차원의 현금지원은 선별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며, 지

방정부 차원의 현금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함.

나. 외국의 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시사점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헝가리의 양육수당 목표와 원리, 지원 내용을 살펴봄.
- 시사점
 - 양육수당은 국가별로 다양한 목표를 지니므로 특히 보육서비스와 가정 내 보육 지원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각 국의 다양한 제도 설계에도 불구하고 연령기준은 대체로 영아에 한정됨.
 - 양육수당과 여성의 노동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특히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양육수당을 통한 가정 내 보육 지원이 휴직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여성의 노동권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4.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

가. 양육수당 제도의 인지와 필요성

- 양육수당제도의 인지
 - 수급자의 86.1%, 비수급자의 63.0%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수급자의 인지도가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양육수당제도의 필요성
 - 비수급자의 경우 양육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2%로 나타남. 이는 시설 및 기관을 이용 시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냄.
 - 양육수당제도의 필요성 인식은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미취업모의 필요도가 취업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나. 양육수당 수급자의 양육 실태

- 수급자 중 취업모의 비율은 8.7%에 불과하여 해당 자녀는 대부분 어머니가 직

집 양육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가정에서 양육하는 주된 이유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너무 어려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약 81%).
- 취업모인 경우 주양육자는 조부모 비율(52.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기관 이용은 전체 1,007가구 중 단 6가구에 불과하여 대부분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되는 것으로 파악됨.

다. 양육수당 주요 효과

- 수당의 합목적성을 살펴보면, 양육수당을 대체로 자녀 양육 용도로 사용됨.
- 아동발달 증진과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출산을 제고 효과는 대체로 낮게 나타남.

라. 양육수당 수요

-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
 - 양육수당 비수급자 중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현재 수준보다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어린이집을 중단하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로 나타나며, 해당 월 희망급여액은 약 470,000원으로 조사됨.
 - 비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 계층인 경우는 급여액을 현행 보육료 지원 수준만큼 증액할 경우 집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이며, 이는 현재 급여액 수준일 경우에 비해 12.5% 증가한 수치임.
- 여성의 노동권 보장 측면
 - 보육료를 지원받는 취업모가 양육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집에서 돌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이며, 해당 비율은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51.5%로 더 높게 나타남.
 - 해당 월 희망급여액 수준은 약 74만원으로 조사됨.
- 출산율 제고 측면
 - 양육수당 증액 시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급자는 28.3%, 비

수급자는 23.4%로 나타남.

- 해당 월 희망급여액은 수급자는 약 46만원, 비수급자는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는 약 61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인 경우는 약 53만원으로 조사됨.

5. 정책 제언

가. 기본 방향

- 보육서비스와의 관계 설정
 - 양육수당의 수급 자격을 현행과 같이 시설 및 기관 미 이용 가구로 한정할 경우 양육수당의 성격은 보육서비스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가정 내 보육 지원과의 관계 설정
 - 가정 내 보육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단, 급여액 수준은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과의 관계 설정
 - 시설 및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현행 양육수당은 양육비의 보편적 지원 성격을 지닌 아동수당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아동수당제도는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나. 개선 방안

- 단기 방안: 현 제도 유지 방안
 - 양육수당 적정급여액은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월 30만원선까지 상향 조정하되, 여성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는 월 40만원선을 초과하지 않는 선을 고려할만함.
 -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가정 내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영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현금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차상위 계층 이하 보다

상향 조정하되, 현행 보육료 지원 대상인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요함.

중장기 방안: 현 제도 개혁 방안

○ 보육서비스 보완 방안

○ 아동수당 대체 방안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이운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

1. 서론
2. 연구 결과
3. 통일대비 남북한 양육 관련 시사점

1. 서론

가. 연구목적

- 북한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양육관, 양육실태 등등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게 주요 연구 목적임.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 악화라는 사회변화가 탁아소·유치원의 이용 및 운영이나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세대별 변화에 따른 북한의 양육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기초로 양육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키우고, 상이한 점들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 전문가 정책자문회의

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면담내용이 북한 전체의 양육실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면담대상자를 가급적 출신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려고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함경북도 등 국경선 일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북한의 특정 지역의 양육 실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함.

2. 연구결과

가. 문헌연구 주요 연구결과

- 일찍이 북한은 의무·무상교육은 총 11년을 완비(우리나라 9년)
- 북한의 양육이념
- 북한의 양육 관련 법령
- 탁아소·유치원 제도

나. 설문조사 주요 연구결과

- 자녀양육관
 -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3.40점(4점 척도),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2.30점으로 북한 부모들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가치 있는 일이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정서적 가치) 3.49점, ‘자녀가 있어서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구적 가치) 2.96점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에서는 정서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보다 높았음.
 -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2.92점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거의 퇴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으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려로 키우기' 3.65점, '숫자와 글자 익히기' 3.53점으로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가장 희망하였음.
- 자녀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 질문에서 '행복한 가정 가진 사람' 3.68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3.42점 순으로 응답함.

□ 양육태도

-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 척도로 양육태도를 파악한 결과, 거부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강하게 나타난 반면, 통제와 자율에서는 분명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음.

□ 양육신념

-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61.8%, '3세까지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67.3%로 자녀양육에 있어 보수적인 양육신념을 보임.
- 버릇없이 굴 때는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쳐야 한다는 엄격한 훈육을 선호했으며, 개인 중심의 가치보다는 집단 중심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했고, 명문대 진학보다는 자녀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더 중시함. 응답자의 86.4%가 양육책임은 국가와 부모의 공동 몫이라고 응답함.
-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3.42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움' 2.43점으로 긍정적 정서가 더 높게 나옴.
- 자녀양육 시 부부 간 양육분담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만 부인부담이고 '밥먹고 옷 입히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공부 돌봐주기' 등 대부분은 부부공동분담이 가장 많았음.

□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실태

- 부모세대(응답자)에서 탁아소를 다닌 적이 '없다' 53.8%로 '있다' 46.2%보다 많음. 그러나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있다'가 더 많았음.
- 부모세대(응답자)에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다' 57.8%로 '없다' 42.2%보다 많음. 젊은 부모세대일수록 '있다'의 비율이 높음(40대 유치원 경험 있다가 83.3%).
- 자녀세대의 탁아소 다닌 경험은 '있다' 76.5%, '없다' 23.5%로 부모세대와는 정

반대로 대부분 탁아소를 다닌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세대의 유치원 다닌 경험은 '있다' 82.6%, '없다' 16.7%임. 그러나 부모 30대 이하에서는 '있다' 29.0% '없다' 71.0%로 정반대임.
- 탁아소와 유치원의 보육교양 내용은 철저한 김일성 부자의 충실성 교육임. 자녀양육 방법, 기술, 태도 등의 부모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음.

□ 북한의 가정 내 양육실태

- 부모세대는 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72.2%였지만, 자녀세대는 병원에서 출산이 52.8%로 집보다 더 많았음.
-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1.0%임. 그러나 부모연령 30대 이하에서는 어머니 양육이 79.3%로 떨어지고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 10.3%로 증가된 특징을 보였는데 이 역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나가면서 파생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예방접종은 무상이며 수유는 거의 대부분이 모유로 함. 분유수유를 한 경우는 면담조사에서 단 1사례만 나옴.
-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의례히 해 줌.
- 북한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인스턴트식품을 거의 먹어보지 못했으며, 외국만화 영화, 컴퓨터 게임 역시 거의 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가족과의 소풍, 여행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자녀에게 장난감과 동화책을 시준 사례도 많지 않았음.
- 사교육은 한 적이 없음이 97.3%로 응답함. 그러나 면담조사에서 일부 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음. 북한에서 사교육은 피아노, 손풍금과 같은 악기 익히기와 태권도 등의 체육을 주로 하며 월평균 비용은 일반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통일대비 남북한 양육 관련 시사점

-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과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자녀양육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은 국가 책임하의 무상, 의무교육과 자녀양육지원을 해왔지만 1990년대 중 후반 이후 이러한 제도가 붕괴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사회주의 제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탁아소와 유치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만 함. 식량공급이 줄거나 끊기면서 도시락을 집에서 싸갖고 와야만 하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난방비도 부모가 지불해야만 함.
- 북한의 어린이는 결핍과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반면, 우리 영유아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통문화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공통점은 찾아서 키워나고, 차이점은 점차 줄여나가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장명림, 이정림, 최은영, 이세원, 정지현, 조유리

1. 서론
2. 연구의 배경
3.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4. 매뉴얼 개발 및 확정
5. 요약 및 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취약계층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3차년도 연구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음. 지난 1차년도에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음.
- 금년은 3차년도 연구로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정부부처 사업 및 전달체계 활용 방안, 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활용 활성화 방

안, 전문 인력 연수와 자료 지원 방안, 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 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하여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최종 검토하고 확정함.

- 취약계층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한 관련 기관 및 관계자 연수를 실시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국 헤드스타트와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합지원을 실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취약계층 가정과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 기관 및 센터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제언을 함.

다. 연구 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 토론회 개최
- 지역 연수회 개최
- 프로그램 적용 과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 프로그램 만족도 및 매뉴얼 요구도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배경

가. 통합적 육아지원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통합적 육아지원은 일반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개입만으로 그치지 않고, 부모가

갖고 있는 요구, 즉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의 욕구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의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적인 역할의 강화를 통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임.

- 1차년도(2009년)에 개발하여 적용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전달체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사업 간 연계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음. 지역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간에 협조 및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

나.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유형별 특성 및 지원 방안

- 취약계층 가정 및 영유아의 특성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가정: 드림스타트 사업의 주요 영유아, 부모 지원 프로그램
 - 한부모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사랑회 한부모 가정 프로그램
 - 조손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가정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영유아, 부모 지원 프로그램
 - 탈북가정: 하나센터의 탈북가정 지원 프로그램

다.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특성

-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은 지역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간에 협조 및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의 시너지 효과 내는 것임. 정부 지원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을 매뉴얼에 담음.

라. 1, 2차년도 연구의 개요 및 성과

- 1차년도(2009) 시범적용 개요
- 2차년도(2010) 시범적용 확대

3.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 3차년도 연구(2011년)에서는 1차년도(2009년)와 2차년도(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임. 본 연구를 위해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 단계를 거쳐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가. 국내외 유사 사업의 매뉴얼 구성 체계 분석

-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로 국내 유사 사업의 매뉴얼의 구성 체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사업개요, 운영 및 추진 체계, 프로그램 및 사업소개, 지역사회 연계 방안, 평가 등이 공통적인 요소로 추출됨.
- 국외 유사 사업의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매뉴얼에는 사업개요, 추진 체계, 지역사회 연계 방안들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상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사업별 프로그램 적용 유형 설정 및 연구협력진 구성

-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연구협력진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회의를 함께 진행함. 매뉴얼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설명, 시범사업의 실시 방법과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전문 인력의 특성과 자격,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사업별 관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각 사업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적용 유형을 설정함.

다. 프로그램 적용 과정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전체 연구협력진을 대상으로 개별 및 그룹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원함.

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협력진 중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한 13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내용지침의 필요성을 파악함.

4. 매뉴얼 개발 및 확정

가. 매뉴얼 구성 항목 선정 및 시안 작성

- 매뉴얼 개발의 사전 조사 단계인 프로그램 적용 과정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얻은 자료와 국내외 유사 사업의 매뉴얼의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구성 요소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내용 체계를 구성함.

나. 매뉴얼 요구도 조사

- 구성된 매뉴얼(안)을 가지고 연구협력진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1차 개발된 매뉴얼의 요소로 선정하여 반영함.

다.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 검토

- 1차 구성된 매뉴얼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력진의 매뉴얼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1차 개발된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하여 매뉴얼의 구성 내용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함.

라. 최종 매뉴얼 확정

- 전문가 회의 및 매뉴얼 검토 의견들을 수렴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매뉴얼의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매뉴얼을 확정함.

5. 요약 및 제언

가. 요약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매뉴얼은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함. 향후 매뉴얼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보완과 개선 통해 각 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있음.

나. 제언

-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의 활성화
- 네트워크를 통한 모형의 적용 확대 및 활성화
-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질적 제고
- 관련 사업 간 노하우 공유 및 지속적 교류 활성화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1. 서론
2. 보육정책 현황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4. 재정 지원 사업 검토
5. 정책방향 제언

1. 서론

-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재정 지원사업인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보육시설 공급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관련 지원정책, 질 관리 정책 등 9개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함.
 -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함.
 - 보육정책 중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앞서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주요 지표는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보육료 전액지원아동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10년 현재 각각 49.2%, 68.7%임.
-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0, 1세 해당아동 5.8%가 지원 받았으며, 2011부터는 지원 연령이 영아 전체로 확대되고 지원액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증가하였음.
- 보육 지원 확충으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0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6.9%,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임. 2009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4.2%,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2.9%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
- 야간보육은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준임. 야간보육은 2%에서 3% 수준으로 30% 이상이 증가하였음.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현재 통과 비율은 70.1%로, 2009년 통과비율 60.5%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였음.
- 보육교사 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은 22.4%로 2009년 18.2%에서 증가하였고,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2.6%로 2009년 2.9%보다 낮아졌음.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 특수보육시책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됨.
- 중앙정부가 시·도에 추진을 위임한 부모모니터링사업의 경우 7개 시·도에서 실시하는데, 서울시와 그 이외 시·도간의 격차가 큼.
-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음.
- 특수보육시책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절기능 확보 필요함.

4. 재정 지원 사업 검토

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정보센터 전문요원, 학계 전문가 총 282명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며, 초과보육 아동 기본보육료미지급은 적절하다는 경향임.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이 더 강함.
 -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화하지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조건으로 클린카드, 평가인증 통과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음.
 - 부모의 취업과 연계하거나 환수 시 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음.
- 부모 인지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과반수의 부모들은 이용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를 모름.
 -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상 차이는 거의 없음.
 - 아동의 92.2%가 5일 모두 종일 이용하여, 표준보육비용은 종일제 주 6일 보육을 전제로 산정된 것과는 일치하지는 않음.
 - 기본보육료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차이도 거의 없음.
- 기본보육료가 추가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기본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이용과 어머니 취업활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42% 정도이고, 어린이집 선택과 추가 출산과 기본보육료는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3.0%, 37.3%임.
 - 영아 기본보육료 수혜여부별 아동이 지불하였다는 추가 납부액은 각각 10천원, 20천원으로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는 영아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추가 비용의 차이는 부모 부담 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임.
- 기본보육료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육 관계자와 부모 모두 재정 지원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이윤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아 중심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성이 희박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초래를 우려함.

- 현재 수준으로 양육수당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는 거의 없으나,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약 20% 정도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기대됨.
- 취업모 중 63.4%는 지원금이 충분하면 직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양육수당이 정책 여하에 따라서 여성 노동공급에 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나. 공공형 보육시설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의 요약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선정 기준 항목으로 수상 실적과 보육료지원비 비율은 재검토를 요함.
 - 항목간 점수는 평가인증 점수와 비상재해대피시설 점수 강화, 수상실적과 원장 경력은 점수 차이 하향조정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감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최대 8점까지 부여되는 평가인증 가점이 약 2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상환액·임대료 감점이 약 10% 정도임.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교직원 전문성 가점 6점임.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을 검토함. 현재 80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에서는 68~90%, 학계에서는 58%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 지원금 지원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함.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25.2%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며, 구간별 지원액에 대해서도 1/3 이상인 34.4%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임.
 - 추가적 지원으로 교사도우미 배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임.
 - 운영기준으로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시용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취약보육 실시를 검토함.
 - 관리체제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율공부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5. 정책방향 제언

가. 보육비용 지원

-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비용 주기적 산정 및 법제화
 - 산출되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점차 현실화
 - 단기적으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교육 등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흡수하여 추가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를 강화함.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기본보육료나 보육료 지원과도 연계
 - 보육비용을 이용시간과 연계하는 방안의 확대 적용이 필요
 - 무상보육이 되면 논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보육료와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며, 평가인증 등 질적 수준과 연계를 추진
 - 평가인증 통과는 물론 클린카드 사용, 1기관 1계좌 사용 등과 같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조건들 추가
 - 영아보육과 어머니 취업의 연계 필요. 이는 사실상 실천하기 쉽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장기 과제로 추진
- 양육수당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므로 점차 양육수당 대상 소득수준 기준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보육정책의 기본철학에 따라 수위 조절 필요
- 현재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겠으므로, 유아로의 확대는 금지되어야 하며, 확대 시에는 아동수당으로 전환!

나. 보육 인프라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지원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
 - 지원 단가 확대
 - 지원 시설 규모의 확대 필요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조건이나 지원수준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정 기준 항목, 배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필요로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
 - 지원금은 아동별 지원이나 반당 지원으로 개선
 - 운영기준으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취약보육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을 추가
 - 관리체제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자율공부는 준비 과정을 통하여 추진
- 시간연장형 보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시간연장형 보육 시작 시간을 현재 7시 30분에서 6시30분으로 한 시간 당겨 실시함. 이를 위해서 종일제 보육 시간을 수정함.
 -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장소로 유도함.
 - 중기과제로 모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야간보육교사 배치를 강화함.

- 어린이집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함.
 -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배려
 -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체계의 효율적 구조 구축
- 파견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관점에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아이돌보미 바우처 체계를 보육과 연계하고,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하며, 시간제 돌보미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심사도 통일적으로 적용
 - 아동 돌봄노동인력에게 일정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 마련함. 아이돌보미 관련법에 조항을 추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체계 구축

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중기 과제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정보에 예결산 포함
- 단기적으로 전체 교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사업으로 수용
- 교사 인력 배치 강화
 - 당분간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
 - 궁극적으로는 1개반 1명 교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
- 교육체계 개선과 인력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금 단가 조정
 - 중기과제로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관리, 지원하는 체계 구축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유아교육정책의 현황
4.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5.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검토
6. 유아교육정책의 과제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은 그 규모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마다 투자비용과 실적규모가 상이하 며 추진 사업 내용이 매우 다양한 유아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상호 발전적 투자 상승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에 도입되는 다양한 중앙 및 지방의 유아교육정책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유아교육정책 지표 검토 및 선정
-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분석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검토
-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을 검토하고 이 중 특정 유아교육정책을 선별적 심층 분석
-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도출,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위치 파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역할 분담 등 정책 제언 도출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면담조사, 설문조사
- 자문회의

2. 이론적 배경

가. 유아교육 지표

- 선행연구에서의 유아교육 지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아교육 지표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교육비 지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평가, 교사 근무 환경, 기타 인프라의 7가지 영역임.
-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은 79.8%로 OECD 평균보다는 높고 EU 27개국 평균 보다는 낮으며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7.5명으로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3~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보육재정과 합한다 할지라도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역시 OECD 평균의 38% 수준임.

나. 유아교육정책 성과 연구

-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국내 연구와 개별 정책에 대해 원하는 측면을 나누어 분석한 외국의 연구를 검토함.

다. 정책평가 연구

-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을 평가한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함.

3. 유아교육정책의 현황

가. 유치원 설치와 이용

- 유치원 수와 학급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치원 원아 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다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만 5세 무상교육과 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만 5세의 취원율을 증가시키고 공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를 통하여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나. 유아교육 재정

- 유아교육 재정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지역별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유아교육 재정 중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인건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순임.
-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2010년 결산 기준 공립유치원 대비 78% 규모이며, 2011년 예산 기준으로는 71%임.

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

- 유아학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또한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있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는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중복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과 지역별 지방정부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2010년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16개 시도별로 각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사,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학부모에 대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보고된 특색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각 시도별로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10년에 보고된 시도별 특색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이 상당수 있었음.
 - 16개 시·도의 특색사업들로 보고된 사업 중에는 다른 시·도와 유사한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검토

가.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

-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12월 8일 발표 보도 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함.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5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각 5개씩 총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립·사립·직장부설유치원 육성 등이 핵심적으로 추진됨.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함.
-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본과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양성·임용·연수·평가·보상 등 교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함.
-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함.

나.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평가

-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현황
 -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향후 공립단설유치원의 표준면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병설유치원의 신증설 경비를 지원할 예정임.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1년 현재 지원 조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료, 입학금 등 납입금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임.
 -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이 해당 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 있음.
 -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 5세 모두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할 예정임.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영어학원을 단속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잘못 알려진 영어학원에 대해 학부모 및 언론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식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원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며 관련 법안을 교과위 법안소위에 제출하였음.
- 2013년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치원비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카드 사용 수수료율 인하, 시·도 교육청의 수수료 일부 보조가 협의되었음.
-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국립 및 단설유치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유치원 평가의 1주기 평가(2008~2010년)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기관평가 발전 방향을 설정함.
- 2008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2009-2010 유아교육연차보고서와 2010-2011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음.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

- 유치원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였고, 유치원교육과정의 연령별 구분을 2011년 9월에 제정·고시된 '5세 누리과정' 과 '만 3·4세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고시하였음.
-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는 심화·특성화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종일제를 운영하고, 종일제 운영 인력을 확충하며(전담교사 확보, 3세대 하모니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마다 심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2010년에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 4종의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간이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1, 2차('10, '11년) 시범 운영하였음.
-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치원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유, 종일반 공동 운영,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지원함.
-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은 2010년부터 KIST R-러닝 사업단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R-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로봇기반교육을 추진 중임.

○ 우수 교원 배치·활용 분야

-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4년 과정으로 단일화하고, 유치원 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필기시험 비중이 큰 임용시험을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개편한다는 계획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을 위해 경력교원을 활용한 멘토링 형식의 장학, 교원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연수기관의 특성화·전문화로 교원의 연수 선택권 확대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011년 3곳의 국립유치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에 단설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은 우수교사를 선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담임 수당 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근속 퇴직교원 포상에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었으며, 2011년 9월 현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수업우수교사 등을 선정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립유치원장 평가 및 공모제 도입은 4년 주기로 공립원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기제 도입 효과를 거두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하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임.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

-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1년 8월 현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교과위 법안소위 제출을 완료한 상황임.
-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계획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1개 이상의 소규모 유아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단설유치원에 설치한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소요 경비 지원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11년 현재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됨을 강조하고 있음.

-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중앙유아교육진흥원),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아교육 성과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를 정례화 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 유치원 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좋은 학교 박람회'에 유치원도 참여하고 있음.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의 기타 과제로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유치원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 공립유치원 및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강화 등이 있음.

□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전반 및 세부과제별 평가

- 교육전문직의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 적절성, 유아교육 질 제고 효과성 평가는 긍정적이나 사업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선진화 정책전달과정은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됨.
- 선진화 추진정책을 통해 3가지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교사, 학부모, 원장, 교육전문직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선진화 추진계획의 분야별 필요도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가 가장 높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가 가장 낮았으며 계획 대비 달성도는 필요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 선진화 추진계획의 분야별 정책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이며 가장 낮은 분야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임.

다. 유아교육정책 심층 분석

1)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 협력네트워크 구성 현황 및 운영 형태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네트워크의 시도별 지원 예산의 경우 전체 평균은 175,457천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별 편차가 다소 있었음.

- 협력네트워크의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네트워크 실시 여부 및 만족도

- '자율 장학 및 연수'에 대해서는 전체 74.9%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물적 자원 공유', '현장학습 공동행사 운영'도 60%이상이 실시하고 있었음.
- '행정요원 공동 활용'과 '도·농 유치원간 자매결연' 사업은 실시비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실시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높은 편이었음.

□ 협력네트워크의 장점

- (유아측면) 보다 폭넓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도·농 유치원 간의 연계 활동을 통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교사측면)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이나 수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음.
- (기관측면)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종일제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치원 홍보를 통해 원아모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 협력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 행정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제,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거점유치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예산지원의 문제,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등이 언급됨.
-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담당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 둘째, 충분한 지원 예산 마련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사업 모델 제시 필요
 - 셋째,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인력 및 행정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2) 유치원 운영 위원회

□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및 구성 형태

- 16개 시도별 교육청 관내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위원회의 구성 형태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협의회가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순으로 나타남.
-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단설유치원은 거의 대부분(99.6%)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절반정도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
- 학부모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첫째,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제 운영에 어려움.
 - 둘째, 사립유치원의 경우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셋째, 행정업무가 많은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한 하나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넷째, 사립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려워 공개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다섯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움.
-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유치원의 특성에 근거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실제적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유아교육정책의 과제

가. 유아교육정책의 성과

-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재정이 증가되고 있음.

- 유치원 설치와 이용률은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OECD 평균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으며, 국공립 이용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유아교육 재정은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향후 지속적인 확대 필요하며,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은 지역 편차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됨.
- 종일제 운영의 확대와 함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계획 대비 가장 달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됨.
-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의 질 관리 체제로서, 평가 결과를 유치원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질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 교사 근무 환경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의 대상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
- 기타 인프라로 2011년 현재 8개의 유아교육진흥원과 3개의 체험교육원이 설치되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 충분한 인력 배치가 필요함.

나. 유아교육정책의 과제

- 유아학비 지원의 지속적 확대와 정책전달과정의 체계화
- 정책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편차 극복
-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선택과 집중과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
-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평가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 분석(Ⅲ)

문무경,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 김혜진

1. 서론
2. 유보협력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와 성과
3. 3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특징과 추진 과정
4. 3차년도 시범기관의 협력 성과
5. 시범사업 확산을 위한 과제와 전략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3개년 동안 수행됨. 1차년도(2009)에는 유보협력 실행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에 착수하였으며, 2차년도(2010)에는 소집단 협력형 시범운영, 협력 매뉴얼 개발 및 시범적용 1단계 평가에 주력하였음. 3차년도(2011)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 자체평가를 도입한 2단계 평가 실시,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나. 연구 내용

- 시범기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과정 파악
- 시범기관이 스스로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양식 개발 및 활용

- 시범기관의 3차년도 유보협력 성과를 협력수준과 서비스 질 향상 수준에서 평가하고 1,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와 비교
- 시범지원체계의 유보협력 성과 분석
- 유보협력 영차컨설팅 패키지 개발
-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의 향후 확산 방안 제시

다. 연구 방법

- 유보협력 시범연구사업 실행
- 유보협력 시범기관 성과 평가 실시
- 영차 컨설팅 패키지 개발
- 설문조사 실시
-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정책세미나 개최
-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라. 연구 동향

- 본 연구소는 기관의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보 협력과 통합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옴.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과 통합 방안’(2006)과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방안 연구’(2007)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 및 통합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유보협력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와 성과

가. 유보협력 실행 모델과 지원체계

- 유보협력 실행 모델

- 「영차」 프로젝트에서는 협력 모델 유형을 지역별, 설립유형별, 협력 형태(일대일, 집단형)으로 범주화하여 총 9가지로 구분하였음.
- 「영차」 프로젝트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협력 가능한 영역을 크게 ① 기관 운영(행정) ② 예산 ③ 시설환경(공간 및 물적 자원 활용), ④ 교사, ⑤ 프로그램, ⑥ 부모참여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유보협력 지원체계

- 각 시범기관의 유보협력을 지원하고 협력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범기관이 소속된 지역별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시도청(계장 및 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담당자(장학관 및 장학사), 시범기관 관계자(기관장 및 교사 대표), 지역사회센터장, 지역담당 연구진으로 구성하였음.
- 중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나. 1,2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추진 과정 및 성과

□ 1차년도 추진 과정

-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선정
- 시범지역 담당공무원 및 시범기관 대상 1박2일 전체 워크숍 개최
- 지역별 시범기관 방문 및 전체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시범기관쌍별 유보협력 연간 계획 수립 및 협력일지와 협의록 작성
- 시범사업 홍보물 지원: 시범기관 차량용 배너 및 엠블렘, 학부모용 안내책자
- 시범기관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특강 지원
- 영차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 지역별 운영협의회 및 '중앙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 시범기관 학부모 전수 조사 실시
- 시범기관 기초선 평가 실시: 외부평가자에 의한 서비스 질 및 유보협력 수준 평가
- 유보협력에 대한 연구진의 시범기관 모니터링 및 상담
- 정책세미나 개최: 유보협력 시범연구사업의 과정 분석 및 사례 발표

□ 2차년도 추진 과정

- 시범기관 추가 선정
- 지역별 운영협의회 개최
- 전체 시범지역 공무원 워크숍 및 교사 연수 개최
- 정책세미나 개최
- 유보협력 성과 평가 지표 보완
- 영차 매뉴얼 개발

□ 1, 2차년도 시범연구의 성과

- 시범기관의 정량적 협력 성과
 - 유보협력 어린이집 2009년과 2010년 평가지표의 환산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협력지표의 경우 2010년의 환산점수 평균이 47.95점으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협력점수가 19.01점 높아졌음.
- 시범기관의 정성적 협력 성과
 - 기관운영 협력: 2차년도에는 기존 시범기관의 경우 1차년도보다 훨씬 효율적인 유보협력 기관운영을 기대하였으나, 기관의 여건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기대수준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시설환경 협력: 1차년도에 이동급식, 차량 활용(유아활동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실시에 이용), 도서관 이용, 텃밭 활용 등이 이루어졌고, 2차년도에는 더 발전된 형태로 지속됨
 - 프로그램 협력: 1차년도의 프로그램 협력이 현장학습과 공동 행사 위주의 일회성 협력활동으로 그치는 경향이었던 반면, 2차년도에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또한 협력 활동 사후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교사 협력: 2차년도 교사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은 모든 시범기관에서 교사협의회를 최소한 월 1회로 정례화한 것임. 또한 2차년도에는 연구진 주관 및 시범기관 자체 교사연수가 강화되어 유보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됨.
 - 부모교육 및 참여 협력: 2차년도에 시범기관들은 공동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참여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일부 기관(부산시 백조유치원과 YWCA 어린이집)에서 양측 기관의 부모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계획, 실시하는 성과가 있었음.

- 예산 협력: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활동 및 공동 교사연수를 위한 강사 비용 공동 부담, 교재교구 공동 구입 및 교대 활용 등의 방식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특히 2차년도에는 교사 협력 및 프로그램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예산 절감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지원체계의 협력 성과
 - 1차년도(2009년)에 영차프로젝트의 지원체계를 각 지역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행정기관(시도·군구청과 교육청)과 지역사회센터(보육정보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담당자들로 구성하였고 지역별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
 - 부산과 강원지역의 행정기관에서는 2차년도에 각 지역의 시범기관에 영차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음.
 - 행정기관과 지역센터에서는 시범기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였음.

3. 3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특징과 추진 과정

가. 3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 및 추진 과정

- 중점 추진 내용
 - 시범기관 자체평가 도입 및 활용
 - 프로그램 협력영역에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 강조
 - 지원체계의 협력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및 성과평가 지표 구성
 - ‘영차컨설팅패키지’ 개발,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

나. 시범기관 자체평가 양식 개발

- 6개의 협력영역별로는 모두 목표를 설정하되, 각 영역내의 세부지표들에 있어서 는 선택적으로 서술식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걸쳐 두 차례 작성하도록 구성

다. 지원체계 성과 평가 지표 개발

- 행정기관의 유보 협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간략한 지표를 개발하여 협력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협력 실천 여부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함.

라. 컨설팅 패키지 개발

- 유보 협력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망라하여 각 지역의 기관들을 상담해 주는 전문적인 조력자용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를 개발하였음.

4. 3차년도 시범기관의 협력 성과

가. 전반적 성과

- 2010년과 2011년 협력 성과 비교
 - 2010년에 비해 협력점수가 21.67점 상승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수준이 매우 높아졌음.
 - 서비스 질 지표는 2010년에 69.57점, 2011년에 97.43점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적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음.

나. 세부 성과

1) 설립유형별 성과

- 유치원의 경우 협력 지표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던 반면, 사립 유치원은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협력지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민간 어린이집은 프로그램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환경협력 영역의 실내 환경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협력형태별 성과

- 협력지표에서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모두 프로그램협력 영역 중 교사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협력 영역 중 부모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서비스 질 지표에서는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개별서비스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관프로그램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반면,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관프로그램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3) 협력영역별 성과

- 기관운영 협력
 - 2011년은 유보협력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유보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관운영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었음.
 - 한편, 제도적인 제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운영시간 조정, 교사대체인력 활용 등의 협력은 여전히 어려웠음.
- 시설환경협력은 3차년도에도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
- 프로그램 협력은 질과 양 모두에서 발전된 모습을 나타냈음.
- 교사협력은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
- 부모교육 및 참여 협력은 3차년도에는 협력기관 자체 주관의 공동 부모교육과 공동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었음.
- 예산협력은 3차년도에는 모든 시범기관에서 연초 수립한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내용이 다양화되었고 절감비용 또한 확대되었음.

4) 유보협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 및 만족도

- 유보협력 이전과 비교하여 향상된 부분으로는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을 66.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놀잇감 및 교재교구 27.4%, 실외놀이 공간 2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대부분의 학부모들(84.5%)이 시범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시범사업 확산을 위한 과제와 전략

가. 시범사업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 성공요인은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의 협력의지와 노력,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가 지원체계로서 기능,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활동을 위한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시범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본 연구소의 리더십임.
- 저해요인은 시범기관 교사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 시간 확보 및 일정 조정의 어려움, 행정기관 공무원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지원 예산 확보 불투명하다는 점, 시범사업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도가 미온적이며, 시범지역 시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심적·재정적 지원이 결여된 점임.

나. 시범사업 확산을 위한 과제와 전략

- 영차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은 16개 시도별 시범기관 지정사업 실시를 통한 확산, 유보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보협력 영차 매뉴얼과 컨설팅 패키지 보급 및 활용,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임.
- 영차프로젝트의 내실화 방안은 유보협력에 대한 시범기관의 자체 평가 시스템 강화, 5세 누리과정의 정착과 이와 연계한 만3-4세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 모색, 시범기관별 유보협력 특성화 사업 추진,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 기반 강화임.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1. 서론
2. 연구 배경 및 정책 개요
3. 자녀양육 환경과 관련 태도
4.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5. 지역사회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6. 취업부모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
7. 정책 제언

1. 서론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양육·보육 지원 서비스와 사업장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나. 연구내용

-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자녀 양육 지원 부분을 검토함.
- OECD 국가의 가족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중심 지원 정책, 사업장 근로 유연성 관련 고용정책과 보육지원 동향, 양육 관련 정보 구득 경로, 남편과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가정 내 자녀의 양육 환경 등 양육태도 및 출산 관련 의견을 파악함.

-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실태와 요구, 지역사회 영유아와 부모 이용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취업 부모 자녀 양육 애로사항, 사업장 내 탄력근무 등 유연한 근로 환경과 요구, 근로자 자녀양육지원 시설과 서비스 관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

다. 연구방법

- 기초 자료와 선행연구를 수집·분석, 전국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부모 2,003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양육 실태, 정책 수혜 실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함.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부모 17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함.

2. 연구 배경 및 정책 개요

- 연구의 배경으로 외국 자료를 검토함.
-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의 배경과 개요를 검토하고 육아지원의 현황을 파악함.

3. 자녀양육 환경과 관련 태도

-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응답이 27.3%이며, 습득 경로로 육아관련 사이트가 37.7%로 가장 많아서 건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육아정보포털 필요성을 나타냄.
- 남편 양육참여 정도가 평일 남편의 근로시간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감축이 남편의 양육참여 확대의 주요한 방안임을 시사함.
-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특히 취업모 자녀양육 중 조부모 지원의 중요성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 조부모 지원이나 대안적 서비스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 조부모 양육 및 베이비시터 양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적응에 힘들까봐 이외에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로 나타나서 가정 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냄.
- 미취업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와 자녀장래가 걱정이라는 문항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아서 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나타냄.
- 출산 제고와 관련하여 미취학, 취학아동의 기관 이용비용의 부담이 크게 작용함. 응답자의 79.3%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그 이유로는 '취학자녀 교육비 부담'을 42.4%로 가장 많고, 미취학자녀양육비 부담 19.8%이었음.

4.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 아동이 매일(월~금) 이용하는 경우가 95.5%이고 토요일 매주 이용은 1.1%, 격주 이용은 1.9%로 나타나, 토요 보육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보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이에 따른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자녀의 기관이용 이유로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17.4%임. 영아도 25.1%임. 이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권 보장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암시함.
- 기관 이용비용에 대하여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전액 지원대상자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50% 이상임. 이는 상당 부분 특별활동 비용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가 부담 감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취약보육 강화 필요성을 나타냄.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시간제보육 58.2%, 토요일보육 50.1%이며 야간보육 37.8%이며 24시간과 휴일보육은 6.8%, 7.6%로 10% 미만임.
-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나타냄. 취약보육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아이 집에서 도우미가 보는 게 좋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3%, 토요일보육 21.1%, 휴일보육 23.4%임.

-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안다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79.1%이고 이외는 50%대 이하임.
- 각 지원정책별로는 출산수준 제고에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아 기본보육료가 50%대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양육수당은 40%대이며 소득공제는 35.4%로 낮음.
- 양육수당은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응답자의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향후 정책 방향의 모색 시에 신중한 접근을 요함.

5. 지역사회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 보육정보센터는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공급이 부족한 편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접근성이 낮음.
-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5가지 사업의 인지율은 최저가 육아정보나눔터 16.7%이고 최고가 장난감 도서관 28.8%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5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영아 종일 돌봄과 공동 육아나눔터는 37.0%, 24.7%로 낮음.
-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부모의 개선요구사항이 보육정보센터 공간 확대 31.5%,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사항 역시 장비나 재료 불충분 17.9%, 공간, 환경 미비가 16.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을 나타냄. 휴일에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중인 어머니의 참여가 어렵고 가족단위의 활동도 매우 어려움.
- 장난감도서관은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중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나, 부족한 장비 및 재료 등으로 인해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음.
- 육아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즉 인력, 공간, 비용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냄.

6. 취업부모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

- 취업 부모 지원의 강화 필요성은 여전함. 자녀의 임신과 출산 후 1년 동안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첫째 25.4%임.
- 사업장에서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자녀 양육문제로 재택근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84.5%, 근무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58.1%로 조사되었음.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은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홍보가 필요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대하여 취업모의 64.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사업체 중심의 지원제도가 소규모 사업체에도 반영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휴직 사업장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37.2%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풍토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보육비 지원이 29.8%로 가장 높았음.
- 보육지원정책 중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66.7%로 가장 높고, 효과적인 제도로도 보육비 지원에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적하였음.

7. 정책 제언

가. 가정 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확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단기적으로는 연계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가상공간을 구축함.

- 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이용시설은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이 도모되어야 함. 야간이나 휴일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배치 등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홍보 등으로 부모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능동적 활동이 필요함.
- 양육 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이용 대상 소득기준은 보육비용 지원 수준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지원 금액은 영아보육에 대한 기본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
- 가정 내 보육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이웃탁아모, 조부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모 육아품앗이 활동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함.

나. 육아지원기관 운영과 이용

- 보육시설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
- 취약보육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재정 지원이 교사 인건비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인증제도와 보육비용 지원 연계함.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등으로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정부 정책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
- 전액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추가부담이므로, 중기적으로 지원 단가 조정과 더불어 충실한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별활동 요구를 줄여나가야 함.

다. 취업부모 양육 지원 활성화

-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확산이 필요함.
-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요구됨.
- 직장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이정립,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1.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아동패널 2011 연구의 목적
3. 해외패널 연구사례
4. 한국아동패널 개요 및 진행경과
5. 한국아동패널 1·2·3차년도 일반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6. 제 1차 심층조사
7.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8. 가중치 작성 및 추정
9.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내용
10.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방법
11. 향후 추진 계획

1.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과 그를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가 필수적임.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패널을 구축, 매해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3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4차년도 연구를 완료하였음.
- 한국아동패널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짐.

2. 한국아동패널 2011 연구의 목표

- 2008년에 출생한 패널 대상 아동들이 만 3세가 되는 4차년도인 올해에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범위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시체계인 육아지원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영역인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자료를 두 가지 통로를 - 육아지원기관이라는 미시체계 안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성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가정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자료 - 통해 구축하고자 함.
- 아동의 발달 특성에 관한 자료를, 다른 아동들과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지표가 제공되는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하고자 함.
- 유아기는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언어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Early Childhood -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사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지난 3년 동안 구축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 아동패널관련 책자(가칭: 한국아동패널 자료 시리즈)를 발간하여 비전공자들도 용이하게 연구결과에 접근하게 하고자 함.
- 육아정책연구소 자체에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적인 의제인 저출산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2011년에는 국제 세미나 및 제 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아동패널과 관련된 패널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National Children's Study(NCS)를 수행하고 있는 바텔(Battelle)연구소 방문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와 향후 공동 연계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2011의 실시를 통해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육아정책과 그에 관련된 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음.
 -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에 관해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제반 사회적 현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비전공자들을 위한 자료집 발간, 정책세미나 개최 및 정책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목표 달성의 효과가 기대됨.

3. 해외패널 연구사례

- National Children's Study: 미국 전역에서 여러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 1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대규모의 종단 연구임. 연구결과를 통해 차세대 아동 건강의 증진, 질병 예방에 대한 증거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 아동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의 시작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이며, 2004년 12월에 마지막 면접이 완료되어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음.

4. 한국아동패널 개요 및 진행경과

- 전체 연구기간은 2008~2020년(2015년까지는 매년 조사 이후 2017년, 2020년 조사 실시 계획)
- 조사 대상은 모집단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표본은 2008년 4~7월에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임.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표본 유지율: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완료 패널은 2,078명, 2차년도 1,904명, 3차년도 1,802명, 4차년도 1,754

명임. 4차년도 표본 유지율은 전년 대비 97.3%, 1차년도 대비 84.4%, 예비표본 대비 68.5%임.

□ 조사 진행 현황

- 2006년도: 한국아동패널 모형개발
- 2007년도: 예비조사 실시
- 2008년도: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09년도: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2010년도: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 2011년도: 4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조사 유형 및 시기

- 일반조사
 -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 우편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개별수행검사 및 웹 조사(4차년도부터 실시)로 이루어짐.
 - 패널 아동이 0~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이후에는 9세,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 계획
- 심층조사
 - 표집 대상의 10% 가량을 대상으로 전체 연구기간 내 총 3회(대상아동이 1.5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 2009년 제1차 심층조사 완료함.

□ 조사 내용

- 아동특성: 개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 특성
- 부모특성: 부부간의 특성, 부모됨의 특성 및 양육 특성
- 가족특성: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기관과 개인대리양육서비스, 각종 학원, 선교원과 같은 유사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향후 이용계획
-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육아관련정책과 재원을 포함한 각종지원, 지역사회

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

- 육아지원정책특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5. 한국아동패널 1·2·3차년도 일반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내용

-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 정책 특성의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일반조사 내용이 구성됨.

□ 일반 조사 방법

- 조사 도구: 어머니 대상 질문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면접조사용 질문지, K-ASQ 및 한국형 덴버 II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프로그램)와 우편조사 병행 실시함.
- 검사: K-ASQ, 한국형 덴버 II를 실시함.

6. 제 1차 심층조사

□ 심층조사 내용은 발달 전반: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 사용, 애착: Q-set 사용, 기질: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사용, 어머니 특성: 성격평가질문지 사용함.

□ 심층조사 절차 및 방법

- 제1차 심층조사는 2009년 2차년도 일반조사인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를 신청한 220명을 선정하였고 206명이 조사를 완료함.
-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심층조사 수행 및 총괄, 검사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함.
- 훈련을 받은 전문 검사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조사대상자

인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내왕하여 검사를 받음.

7.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 제3차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함.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내용
 - 신생아 특성: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아동성별, 출생 시 몸무게와 키, 머리둘레, 출생서열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 등으로 구성됨.
 -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 등 구성됨.
 - 임신 및 출산 특성: 임신관련특성과 출산관련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함.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방법
 - 2010년 4월~7월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을 표집함.
 - 조사방법은 출생 시 면접조사 및 4개월 후의 전화조사임.

8.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제시하였음.
- 매해 일반조사가 완료된 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다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므로, 올해에는 3차년도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9.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내용

- 국내외 영유아대상 관련 패널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변화 추이 및 결과를 파악

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간행물을 고찰함.

- 4차년도(2011년) 일반 조사 실시를 위해 3차년도(2010년) 일반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 내용을 확정하여 CAPI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질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를 웹 질문지로 개발함.
- 3차 조사 이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들에 관한 인지도,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과 반일제 이상 학원의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참여,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아동의 발달에 따른 행동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행동 문항으로 이전 문항들을 수정함.
- 경제 관련 변인들을 수정, 보완, 추가함.
- 패널 대상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직업관련 문항 등은 CAPI상에서 지난해의 자료를 연동하여 전년도 정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구현되도록 로직을 구성함.
- 아동의 언어 발달을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으로 측정함.
- 아동의 가정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10.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방법

-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설문조사, 발달검사, 가정환경검사: 가구방문 면접 시 EC-HOME을 부모에게 실시함.

- 4차년도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조사
- 3차년도 일반조사 자료 처리 및 가중치 부여
- KICCE 국제 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의 영문 질문지를 공개함.
- 정책세미나 개최 및 육아지원정책 포럼에서 발표함.
- 발달 리플렛 제작, 홍보 책자 발간,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개정 및 브로슈어 제작함.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의 2011년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및 해외출장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함.

11. 향후 추진 계획

- 4차년도 자료 구축 및 기초 분석
- 4차년도 자료 처리 및 1·2·3·4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 4차년도 자료 가중치 산출 및 부여
- 2차년도 자료 대중 공개
- 5차년도 조사 준비 및 실시
- 패널관리 및 추적
-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이정립,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 1. 3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 2. 3차년도 기초분석

1. 3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에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분석한 결과임.
-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분석하였음.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2. 3차년도 기초분석

- 일반적 특성
 - 아동 특성
 - 아동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8.4%, 둘째아가 40.9%였음.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26개월 30.4%, 25개월 25.0%, 27개월 17.1%이었음. 아동의 체중은 평균 12.55kg이며, 키는 평균 88.82cm이었음.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 99.9%, B형 간염 92.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4회) 95.8%, 소아마비 93.6%, 홍역·볼거리·풍진 98.6%, 수두 97.9%, 일본뇌염(1~2회) 96.9%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의 건강상태 중 사고/중독으로 입원치료 경험은 18.6%, 사고/중독 횟수는 평균 1.40건이었음. 아동 중 15.1%가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횟수는 평균 1.29회, 기간은 8.06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는 0.93회로 나타났음.
- 3차년도 조사 시점까지 모유수유 중인 가구는 출생 후 2차년도까지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가구 42.8% 중 3.1%로 나타났으며, 평균 8.93개월에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모특성

- 부모 평균 연령은 어머니 32.79세, 아버지 35.60세이고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98.9%가 초혼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5.74년이었음.
- 어머니 53.6%, 아버지 43.4%가 종교가 있으며,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서였음.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71.3%, 아버지는 74.5%였음.
- 부모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어머니 96.3%, 아버지 95.5%이며, 타지역 근무 등의 이유로 비동거하는 경우는 어머니 3.7%, 아버지 4.5%로 나타났음.
- 부모의 건강 관련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가 어머니 0.3%, 아버지의 0.5%로 조사되었음.
- 어머니의 21.9%, 아버지의 37.6%가 월 2~4회 음주를 하고, 어머니의 1.1%, 아버지의 51.9%가 흡연을 하였음. 아버지의 97.5%, 어머니의 32.9%가 취업 중이며 아버지는 72.4%, 어머니는 70.0%가 정규직이었음.
- 취업모의 93.1%가 재직 중이며 6.9%가 휴직 중임. 휴직 중인 어머니의 71.9%가 복귀할 예정이며, 7.6%는 복귀할 계획이 없었음.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 중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 이직할 예정은 1.6%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음.
- 학업 중인 어머니는 매우 적었고, 미취학/미취업 어머니의 44%는 결혼 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원 구성은 평균 2.93명이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86.2%, 3세대 가족이 9.3%이었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377.50만원이며, 지출에서 소비성 지출은 196.48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92.76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족생활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평균적으로 3.59건, 비규범적 사건은 0.71건으로 나타났음. 사회적 지원은 지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3.87점으로 나타났고 정

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도 비슷한 수준임.

- 거주하는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44.9%, 전세 38.5%이며,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73.6%, 연립주택(빌라 포함) 10.9%, 단독주택 8.3%이었음. 전체 가구의 0.7%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0.0%가 차상위 계층이었음.

○ 지역사회 특성

- 주거지역의 형태는 일반아파트지역이 6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 지역이 25.2%로 전체의 94.1%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 각각 50.1%, 32.9%, 31.4%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공공여가 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44.3%, 19.3%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음.
-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에 대해 각각 40.3%, 33.7%가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35.7%이었음.

○ 위탁가구 특성

- 전체패널 중 1.8%의 아동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음. 1차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이용하는 경우 61.4%, 변경된 경우 38.6%로 나타났음.
- 위탁가구는 대부분 외가 위탁이 50.7%, 친가 위탁이 49.3%로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은 일반 주택지역이 54.2%, 일반 아파트 지역이 26.8%로 조사되었음.
- 위탁가구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기관 충분도는 각각 40.2%, 44.0%, 41.3%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과 문화시설 편리성은 각각 49.3%, 31.3%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위탁가구 지역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에 관해 각각 44.8%, 35.0%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은 좋음 25.2%, 매우 좋음 11.9%이었음.

□ 아동발달 특성

- K-ASQ 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의사소통영역 5.5% 대근육 운동영역 1.1%, 소근육 운동영역 1.8%, 문제해결영역 1.5%, 개인-사회성영역 1.2%로 나타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발달영역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음.

- K-ASQ 검사 결과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의사소통 영역 영역이 12.3%, 소근육 운동영역 8.9%, 개인-사회성 영역 7.3%, 문제해결 영역 6.4%, 대근육 운동영역 6.0%이였음.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발달영역별 차이는 없었음.
- Denver II 검사 결과 전체 아동의 89.8%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0.2%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되었고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영역의 3개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는데, 정서성과 사회성에 비해 활동성의 점수가 높았음. 정서성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즉, 비취업모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취업 모 자녀보다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기초생활습관은 기존의 수면, 식습관, 배변 및 씻기 습관 영역에 놀이와 사회적 활동 영역을 추가하고 문항도 추가하여 조사함. 기초생활습관 각 영역별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부모됨의 특성

○ 부모됨

- 전체 어머니의 32.5%가 후속 출산계획이 있으며, 59.9%는 후속 출산계획 없다고 응답함. 후속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자녀교육비용 때문이 29.0%, 계획한 수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져서 24.7%이였음.
-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의 계획 자녀수는 1명이 89.2%이며, 후속 출산 시기는 1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41.1%, 1~2년이 36.0%이였음.
-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70.6%, 남편이 22.3%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 어머니 56.9%, 아버지 60.8%가 2명을 선택하였음. 어머니의 58.8%, 아버지의 61.4%가 성별의 구분 없이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음. 성별을 구분할 경우 어머니의 35.8%, 아버지의 52.7%가 아들 1명, 딸 1명을 선호하였음.
- 부모가 갖는 자녀가치는 모두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였음.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어머니 특성

-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6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 3.4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이고,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우울 평균점수는 1.9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체 어머니 23.2%는 경도/중등도, 6.6%는 중도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특히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우울이 높게 나타났음.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평균 점수(3.85)보다 남편의 평균 점수(4.21)가 더 높게 나타남.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부부갈등에서 아내(2.09)와 남편(2.08)의 평균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남편이 갈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육 특성

-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의 남편들이 더 자녀 양육에 협조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주중 6.69시간 정도, 주말 8.18시간 정도이었음.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29.90시간, 주말은 15.34시간이었음.
- 아버지의 84.2%, 어머니의 87.2%가 자녀의 장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어머니의 49.0%, 아버지의 57.4%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취업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순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양육실제인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3.8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없었음. 어머니의 50.8%가 총 13개의 양육지식 문항에 대해 평균 70.95점으로 75%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9점이고,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 관련 특성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보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의 개인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개인대리양육자 14.9%, 어린이집 46.0%, 반일제 이상 학원 1.0%가 변경한 경험이 있었음.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개인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 변경 비율이 높았음. 또한 개인대리양육자 평균 1.03회, 어린이집 1.02회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변경 횟수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음.
- 조사 시점의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는 48.1%,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는 51.9%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비취업모에 비해 부모 외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를 알아본 결과,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91.9%, 지원이 있는 경우가 8.1%로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음. 비취업모의 경우는 5.6%, 취업모는 37.5%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움을 제공하는 인원은 평균 1.40명이었으며, 외할머니 32.8%, 친할머니 27.8%로 주로 자녀의 조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음. 양육지원자의 35.9%가 동거를 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평균 19.65분 거리에 살고 있고 평균 9.85시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46.8%,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 40.5%이었음. 개인 대리 양육자는 외할머니 42.0%, 친할머니 38.3%로 아이의 조부모 비율이 높았음.
- 개인대리양육자는 97.9%가 여자였으며, 결혼을 한 경우가 83.2%, 학력은 중졸

이하가 47.7%, 고졸이 37.9%였으며, 98.9%가 자녀양육 경험이 있었음. 구인 경로는 주로 주변의 소개 44.6%로 나타났음.

- 개인대리양육자가 낮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경우가 34.8%,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3.4%이었으며, 주중 5일간(월~금) 이용이 74.6%, 이용시간은 평균 11.61시간이었음.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은 정기적 현금지불이 84.6%이며, 지불할 경우의 평균비용은 62.40만원이었고, 현물로 지불할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 시 3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었음.
-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를 주제별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40.6%로 조사되었음.
-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일반 아파트지역이 60.6%, 일반 주택지역이 29.9%이었고,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이 98.9%로 가장 많았음.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이 44.4%, 민간 어린이집이 39.4%의 순이었으며, 어린이집의 62.5%가 평가인증 시설이고, 37.5%가 미인증 시설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 평균 이용 시간은 주 5일(월~금) 이용이 96.0%로 하루 평균 7.79시간이었으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음.
- 어린이집 평균 이용비용은 23.36만원이며, 72.1%가 지불하였고, 27.9%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38.3%, 적당하다는 응답이 21.1%이었음. 기관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 64.3%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조사한 결과, 음악 프로그램 39.4%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86.5%가 선택 없이 무조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39.4%이었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56.7%로 더 많았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의 유형은 기관의 정규 교사나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음.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은 23,411원이었으며 이용시간은 30분이 43.1%로 가장 많았음.
- 육아지원서비스 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22.5%로 나타났고, 평균 1.37개를 이용하고 있었음.

- 진행방식은 70.7%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29.3%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24.9%,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5.1%로 응답하였음.
- 프로그램은 월 평균 4.19회, 회당 37.94분, 7개월 정도 이용하며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평균 4.7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가정 내의 영어 학습 시작 시기는 11~15개월이 33.9%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34,407원을 지출하였음. 이용시간은 주당 227.85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관/시설 이용 계획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관 이용보다는 직접 자녀양육을 하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세를 기점으로 기관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증가하고 있었음.
- 육아지원정책 특성
 -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방향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과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모두라는 응답이 54.9%이었음.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으로서 여성의 출산 휴가 86.8%, 남성의 출산휴가 56.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는 여성의 출산휴가를 비취업모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직장 어린이집 71.3%, 보육비 지원 85.6%, 시차 출근제 56.9%, 대체 인력풀 운영 5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0.2%가 매우 필요하다 하였음.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별 질문에 여성의 출산 휴가 55.1%를 1순위로 응답하였음.
 -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중 농어민 가정 육아비는 전체의 1.1%정도가 수혜 경험 이 있었으며 비취업모가 더 많았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0.2%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중 시행 여부로 여성의 출산휴가 98.7%, 여성의 육아휴직 80.7%, 남성의 출산 휴가 59.2% 순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여성의 출산휴가 87.4%, 여성의 육아 휴직 76.6%, 보육비 지원 29.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음. 재정 지원 관련 정책은 국가에서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 75.8%, 잘 모르겠다 17.2%로 응답하였음. 한편, 미취학 아동의 양육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70.3%, 잘 모르겠다는 24.2%, 희망 지원 비용은 30만원 이상이 56.7%나타남.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김지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비교
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기초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이하, 2010년도 부가조사)는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1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이 2010년도 부가조사를 통해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음.
-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 수집된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조사 대상

의 일반적 특성, 아동 발달 특성, 임신 및 출산, 어머니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및 육아지원 관련특성의 여섯 영역이었음.

- 2010년도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해당됨.
- 병원면접조사: 훈련받은 조사원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을 주 2회 방문하여, 신생아 가구의 산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행하였음.
- 전화조사: 병원면접조사 실시 약 4개월 후인 9월부터 본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가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현황: 병원면접조사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전화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던 794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전화조사를 종결, 총 731가구 (91.9%)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3.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비교

- 조사대상: 일반조사인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모집단은 2008년 4~7월말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2010년도 출생아가구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8월초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임.
- 두 연구 모두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병원을 선정하고 2008년 구축 예비표본 가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2010년도 부가조사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1차년도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2008'의 연구방법 대체로 동일하나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사연도와 면접원임.

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기초분석

- 2010년도 부가조사 자료는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시에 수행한 병원면접조사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수행한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화조사 자료임. 병원면접조사의 총 사례수는 1,000가구이며, 전화조사의 총

사례수는 731가구임.

- 2010년도 부가조사의 분석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제별로 이루어짐.
 - 일반적 특성: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어머니의 취업/학업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였음.
 - 임신 및 출산 특성: 임신 특성, 출산 특성으로 구분함. 임신 특성은 임신관련 특성, 태내환경 및 태교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출산 특성은 출산관련 특성 및 출산계획과 기대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아동발달 특성: 신체발달과 기질로 구분함. 신체발달은 출생 시와 생후 4개월의 체중, 신장, 두위 및 출생 후 건강상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기질은 정서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부모양육 특성: 어머니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가족 특성: 가족생활사건과 가계경제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육아지원관련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과 육아지원정책 특성으로 구분함.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및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일반적 특성
 - 아동특성: 성별의 경우, 남아 517명(51.7%), 여아 483명(48.3%)이었고, 출생순위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532명(53.2%), 398명(39.8%)이었음.
 -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9세였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32.1세, 비취업모 31.9세로 취업모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음.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39.1%, 고등학교 졸업 31.6%, 2·3년제 대학 2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1차년도 결과와 유사함.
 - 어머니의 근로특성: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는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61.6%, 취업(휴직 포함) 중인 어머니가 37.1%, 학업(휴학 포함) 중인 어머니가 2.1%이었음. 1차년도와 비교하면 1차년도의 전업주부 67.9%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취업 또는 학업 중인 어머니는 많았음.

□ 임신 및 출산 특성

- 임신관련 특성: 산모 평균 신장은 161.64cm(1차년도 평균 161.00cm), 산모 체중 증가의 평균은 13.51kg(1차년도 13.30kg)이었음. 산모의 임신 방법은 자연임신의 경우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와도 유사한 결과임. 산모의 재태기간은 평균 274.01일이었음.
- 태내환경
 - 임신 중 영양상태는 산모의 대부분인 89.7%가 정상이라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70.4%가 임신 중 출혈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임신 중 흡연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99.3%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 중 배우자는 전체의 53.3%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는 46.7%로 나타났음. 배우자 흡연의 경우 1차년도에 배우자가 흡연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53.5%,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5%로 흡연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 부가조사에서는 그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음.
 - 산모의 임신 중 음주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94.2%가 음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8%는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임신 중 약물 복용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8.6%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1.4%는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태교
 - 태교의 필요성에 대한 산모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 34.9%, 약간 필요하다 18.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산모가 태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인터넷을 통해 태교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5.1%), 태교를 시작하는 시기는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65.3%).
 - 태교를 한 이유에 가장 많은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4.7%가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였고, 태교를 하지 않은 이유에 응답한 산모들은 76.0%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태교의 효과에 대한 산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37.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는 32.5%, 태교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음.

- 임신 중 태교를 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기가 차분하고 순하다(25.0%)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태교를 했던 음악이나 책에 반응을 보인다(22.6%) 등의 순이었음.

○ 출산

- 분만 형태: 자연분만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1.1%), 계획된 제왕절개(25.8%),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23.1%)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임.
- 분만 시 의료적 도움 여부: 전체 응답자 중에서 47.9%는 분만 시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유도분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분만교육 장소: 의료기관이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여부: 배우자가 동참하지 않는 경우는 60.1%로 배우자가 분만교육에 동참하는 경우인 39.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퇴원 후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의 경우가 53.9%, 자택인 경우는 31.2%, 친정집인 경우는 12.2%로 나타났음.

○ 출산계획과 기대

- 계획임신 여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획하거나 바랐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으나, 21.6%의 부부가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1차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임.
- 기대성별: 임신 중 바랐던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경우 딸이 39.6%, 아들이 30.3%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딸이 40.7%, 아들이 26.0%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음. 바라는 성별이 없었다는 응답은 어머니 30.1%, 아버지 33.3%로 나타났음. 1차년도와 비교해볼 때, 어머니(37.9%→39.6%)와 아버지(37.4%→40.7%)모두에게서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해졌음.
- 여아선호 언론보도: 남아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바뀌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81.4%(814명)로, 꽤 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언론보도는 취업모보다는 비취업모가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아의 어머니가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여아선호 언론보도의 영향: 여아선호 언론보도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한 언론보도가 자신의 자녀성별 선호도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로 많지 않았음.
-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3명이라는 응답이 20.0%, 1명이라는 응답이 11.6%였음.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경우 1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차년도 조사에 비해 기대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이 적었고, 2명과 3명이라는 응답은 많았음.
- 후속출산계획: 병원조사에서 약 29.3%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5.7%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음. 첫째 아이인 경우는 낳겠다는 의견이 49.6%로 나타났고, 둘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는 낳지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79.1%로 나타났음.
- 출산 중단 이유: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24.5%,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8.6%'가 그 다음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조사와 유사한 경향임.
- 이상 자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62.1%), 3명(29.8%)으로 나타났음.

□ 아동발달 특성

- 신체발달: 출생 시 체중은 3.0kg 이상 3.5kg 미만이 49.1%, 출생 시 신장은 50cm 이상 52cm 미만이 36.8%, 출생 시 두위는 35cm 이상이 25.6%로 가장 많았음. 4개월 시 체중은 8.5kg 이상이 29.3%, 4개월 시 신장은 65cm 이상 70cm 미만이 50.1%, 4개월 시 두위는 41cm 이상 43cm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음.
- 출생 후 건강상태: 부가조사 대상 아동 전체의 89.7%는 출생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5.4%가 출생 후 신생아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출생 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9%로 나타남.
- 기질: 부가조사 대상 아동의 정서성 총점은 11.43점으로 1차년도의 총점인 13.45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양육 특성

- 어머니의 자녀가치: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문항 평균값은 4.55점, 도구적 가치는 2.87점으로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1.6%로 1차년도와 비슷한 비율이었음. 한편 출산을 경험한 후 양육신념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출산 전에는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56.2%였으나 출산 후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73.0%로 출산 전에는 18%에 불과한 비율이 50%이상 증가하였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가조사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총점은 12.83점으로 1차년도 동일문항을 비교한 총점 13.54점보다 다소 낮았음.
- 남편의 양육참여: 1차년도에 어머니가 인식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전체 총점은 6.94점이었으나,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는 7.30점임.

□ 어머니 특성

- 우울: 출산 후 4개월 이후에 측정된 우울을 살펴보면, 출산 전보다 정상군의 비율이 76.3%로 높아지고, 경도/중도는 16.6%로 낮아진 반면 중도의 비율은 7.1%로 더 높아졌음.
- 결혼만족도: 2010년도 부가조사에서의 결혼만족도는 3.98점으로, 1차년도의 3.78점에 비해 다소 높으며, 결혼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특성

- 가족생활사건: 규범적 사건(34건), 비규범적 사건(59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생활사건은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약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계경제요소: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5.4%, 301만원~400만원 21.5%, 101만원~300만원이 19.8% 순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관련 특성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대리양육자 유무: 어머니가 혼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나타났음.

- 대리양육자 유형: 외조부모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36.0%, 친조부모가 27.7%, 친인척은 3.1%였고, 중복응답을 합해 친인척이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정책 특성
 - 2010 부가조사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99.7%가 고운맘 카드의 시행을 인지하였고, 보육·교육료 지원은 대상자의 80%정도가 인지하고 있었음. 다른 정책 시행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의 과반수는 인지하고 있고, 반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운맘 카드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 중 97.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책들은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 2010년 현재 조사 대상자들의 이번 임신과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고운맘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거의 동일하였음. 그 밖의 다른 정책들은 영향이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10%이하에서 30%에 분포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를 더한 비율이 20%에서 60%대에 위치하였음.
 - 2010년 현재 후속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부부 보육료지원 확대와 난임부부 지원을 후속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지하였음.
-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 조사 대상 중 취업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95.6%)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86.5%)과 대체인력풀 운영(61.8%)이었음.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육지원을 제외한 모든 제도의 시행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출산휴가(95.4%)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84.4%의 취업모가 대체인력풀을, 64.6%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의 방향: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 어머니의 61.5%가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이 21.3%로 응답하였음.

수시연구과제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서문희, 김진경, 유해미, 조혜주, 김명순, 서영숙, 이완정, 한유미, 나종혜,
이영환, 김혜금, 이미정, 오연주, 황혜정, 서소정, 성지현, 이유진, 황옥경,
최혜영, 김선영, 박진옥

1. 서론
2. 이론적 배경 검토의 시사점
3.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4.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와 정책방안
5.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 작성

1. 서론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요구를 파악하며, 새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새로이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2007년에 제정된 표준보육과정령 및 고시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표준보육과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
 -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문제점 및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
 -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해설서를 작성
-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으며, 영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수집,

제시하였음.

- 시설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문제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의견 수렴
- 보육관련 학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운영하여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의 적용을 위한 해설서 작성 작업을 추진

2. 이론적 배경 검토의 시사점

- 교사와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교사지침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하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표준보육과정 활용에 장애가 되는 여건으로는 '활동준비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표준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활동 준비 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냄.
 - 교재·교구 부족 해소, 시설장과 교사의 전반적인 보육 역량 강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감소, 교재교구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됨.
- 평가인증 과정이 진행 중인 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아서 평가인증에 대한 준비가 표준보육과정 인지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평가인증의 지표에 표준보육과정의 수행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

3.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 먼저 법적 근거 하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거점 전달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전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영국은 2007년 0~5세 영유아기 교육과정인 EYFS를 개발하여 교육과정관리국

(QCA)이 관리하며,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 교육기본법(2006년)을 기초로, 유치원교육의 기본목표,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시간 종료 후에 행하는 교육활동 등을 제시하고, 5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교육목표 및 내용을 포함하였음.
 - 호주도 교육과정으로 아동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 및 학습이 경험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영아기부터 아동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 영역 간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EYFS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 단계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발달의 '연속성'을 강조
 - 호주의 EYLF의 기초는 아동의 삶이 소속감, 존재감과 변화의 특징을 가진다는 시각임.
-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적용 가능한 원리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EYFS 원리는 아동의 고유성, 긍정적 관계, 학습 촉진 환경, 학습과 발달 등 네 가지 원리를 제시
 - 호주의 EYLF에서도 교수법 원리로써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 동반자 관계, 높은 기대 및 형평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속되는 학습 및 반성적인 실천을 제시하며 지침으로 전체적인 접근, 아동에게 반응적임, 놀이를 통한 학습, 의도적인 가르침, 학습환경, 문화적 유능성, 학습의 연속성 및 전환점, 학습의 평가 등을 제시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호주 모두 체계적인 교육과정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다음 계획에 반영됨.

4.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와 정책방안

-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실태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표준보육과정을 보육과정 지침서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교과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표준보육과정의 접근성은 매우 낮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며, 주된 인지 경로인 교육 경험은 일회성이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료책자의 배포 등 보급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평가 및 적용

-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외하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높게 나타남.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은 주로 평가인증과 연계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적용 방식은 대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나타남.
- 실제 적용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용어간의 혼동,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부족, 복잡한 내용 기술로 인한 활용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됨.

□ 활용 제고 방안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 방안으로는 1) 전달체계의 확충 2) 홍보 강화 3) 교육(연수) 강화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기됨.

5.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 작성

-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¹⁾에 대한 해설서(안)을 작성, 수록하였음.

1)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마련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1. 서론
2. 연구의 배경
3.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분석
4.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실태와 인식
5.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조기교육열은 놀이 중심의 통합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나누어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음.
- 종일제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10. 9)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따른 교·보재를 2011년 2월에 현장에 보급 완료하였음. 이를 평가하여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의 원활한 현장 착근을 위한 활용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인식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실태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제안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2. 연구의 배경

가.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념

- 최근까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던 특별활동 명칭이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음. 이후 유치원 종일제에서 기본과정과 상관없이 유아들의 특정한 영역의 발달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

나.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정책

- 유아교육선진화방안
 - 2009년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교육과학기술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에 제시됨.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정책의 핵심과제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방안'임.
-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

- 2010년 4월에는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을 담은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종일제에서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프로그램 종류, 강사자격 등을 규정함.

다. 특성화 프로그램 실태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1~2개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예·체능분야를 실시하며, 영어, 과학 등의 프로그램도 다수의 기관이 진행함.
-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의 요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특별활동 실시유무가 원아모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며, 교사는 유아의 관심 및 흥미 증대, 소질 개발 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반면 특별활동 담당자의 자질 문제, 유아의 스트레스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3.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분석

가. 음악 프로그램: 아해 뮤직

-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유아교육 선진화' 및 다문화/국제화 사회에서 유아의 '음악적 생활화' 실현이 목적임.
- 프로그램의 구성
 - 음악개념과 음악활동 요소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여 연령별로 제시됨.
 - 종일제 음악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은 '음악 지식 쌓기 → 음악 표현(연주) 기술 향상시키기 → 음악 즐기기과 생활화하기'의 3단계로 이루어짐.
 - 평가 방법은 유아음악능력검사, 형성평가, 학부모 참관수업 및 작은 음악회로 구성

프로그램의 활용

- 지도서, 교수활동용 E-BOOK, 유아음악능력 검사도구, 부모용 소책자, 음악 교·보재를 개발하여 활용함.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통합 모형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4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모형을 제시함. 통합 활동은 1년에 두 차례(학기말에 1회) 정도 이루어지거나, 학부 모 참관수업 및 시연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종일제 특성화 음악 프로그램 혼합연령 모형

- 연령별 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혼합 연령 운영 모형을 제시함.

나. 미술 프로그램: 창의 아트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종일제 특성화 미술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술의 영역이 확대되고 통합되며, 보급과 활용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프로그램의 구성

- 미술적 견지에서 탐색, 감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각과 이해', '다중소통', '창의적 표현' 등 창의적 사고의 과정과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 유아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통합적 유아교육 과정을 기초로 4분기로 구성됨.

프로그램의 활용

- 프로그램 전체 목록표, 활동지도서, E-Book, 가정 연계 활용 자료 책자와 CD-ROM, 게임 자료 책자와 CD-ROM, 교·보재 자료(미술도구세트)로 구성됨.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통합 모형

- 연령과 분기별로 통합계획안을 제시함.

다. 체육 프로그램: 튼튼 체육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유아의 기본 운동 능력 및 기초 체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부모의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종일제 운영의 내실을 돕고자 함.

프로그램의 구성

- 종일제 운영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5가지 분야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도 단계에 맞추어 교육 활동을 구성함.
- 유아의 흥미를 위해 준비운동, 본 교육 활동, 정리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함.
- 유아들의 체육 기능의 발달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줄넘기, 요가, 춤, 태권도, 공놀이’의 5개 영역을 평가함.

프로그램의 활용

- 강사용 지침서, E-BOOK, 튼튼체육(동작도해도), 튼튼이네 체육시간(가정연계자료), 튼튼이의 건강한 하루(스티커 북), 줄, 공셋트로 구성됨.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통합 모형

- 4개 영역을 통합 할 수 있는 제 3의 주제를 선정하여 통합 모형을 제시함.

종일제 특성화 체육 프로그램 혼합연령 모형

- 연령 수준별 지도가 필요한 활동을 하나 선정하여 5가지 혼합연령 활동을 제시하고, 공통 활동을 마친 후 수준별 모듬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과학 프로그램: 재미팡팡 코코과학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인간-사회가 함께 하는 과학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를 만족시키고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유아교육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프로그램의 구성

- 과학의 영역과 내용 범주를 확대하고, 유아들이 구체적인 실험에 참여하여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
-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환경과학(환경공학, 재생에너지)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령별 발달과 학습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과학내용으로 제시함.

- 연중(50주) 총 150개 활동으로 연령별 평균 50개 활동으로 구성되며, 1회 활동 시간은 약 40분 정도임.
- 교수-학습 과정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유아 스스로 의문점을 가지며 자신의 의문을 실험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 관찰, 자료수집, 자료 분석, 결과 예측, 토론 등의 탐구과정을 경험하게 함.
-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그래프와 차트, 일화기록 및 관찰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변화와 유아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수행함.
- 프로그램의 활용
 - 강사용 지침서(E-book), 부모용 소책자, 실험용 교구 세트로 구성됨.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통합 모형
 - 4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과학)를 통합할 수 있는 예시를 부록에 제시함.

마. 특성화 프로그램 분석

- 프로그램의 구성 분석
 - 질적으로 우수한 종일제 운영, 유아 학습과 발달의 최적화,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임.
 -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4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음. 또한 각 프로그램은 연령별 구성체계(체육, 음악 제외). 음악 과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혼합연령 모형을 제시함.
 - 개발된 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의 과정과 다양한 유형(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그래프, 일화기록 등)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설계됨.
-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분석
 - 개발된 특성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용 자료를 통해 교사들에게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제언
 - 프로그램의 연령별 구성 체계가 다양화되어야 함.
 -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프로그램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후의 과정과 진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다면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함.

4.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실태와 인식

가.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실태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종일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41.5%가 실시하고 있음.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75.3%가 알고 있었음. 상대적으로 학부모는 모른다는 비율이 높았음. 학부모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설명회였으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종일제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경우, 민간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개발프로그램이 39.2%로 가장 높고, 유아 발달에 대한 적합성이 26.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이유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서가 30.8%로 가장 높고,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가 26.7%로 다음으로 높음.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39.4%가 민간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 34.2%임.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우수강사 확보임.

□ 과목별 운영 실태

- 음악은 60%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4회(43.3분)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진행 강사는 특성화 강사가 71.8%이며, 74.7%가 관련 연수를 이수함. 반구성은 70.6%가 혼합연령으로 진행하며, 43.5%가 기존 프로그램과 혼합하여 적용함. 특성화 강사와 담임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는 응답은 유치원교사와 특성화 강사 응답 간 차이가 나타나 교사는 76.7%, 강사는 95.5%가 협의한다고 답하였음.
- 미술은 48.0%가 실시되고 있으며, 주당 1.5회(44.6분)로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진행 강사는 특성화 강사가 66.3%이며, 70.0%가 관련 연수를 이수함. 반구성은 66.5%가 혼합연령으로 진행하며, 52.4%가 기존 프로그램을

과 혼합하여 적용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76.5%가 담임교사와 특성화 강사가 협의한다고 응답함.

- 체육은 46.7%가 실시하고 있으며, 주당 1.4회(87.8분)로 음악이나 미술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진행 강사는 특성화 강사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79.9%가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음. 반구성은 67.3%가 혼합연령으로 진행하며 49.7%가 기존 프로그램과 혼합하여 적용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76.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특성화 강사가 담임교사보다 협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과학은 21.4%가 실시되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주당 1.4회(63.8분)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진행 강사는 48.1%가 특성화 강사이며, 71.2%가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반 구성은 혼합연령이 59.4%이며, 40.6%가 기존 프로그램과 혼합하여 적용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70.7%가 담임교사와 특성화 강사 간 서로 협의한다고 응답함.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연수 실태

-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43.7%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 대·중·소도시는 50%이상이 읍면지역은 23.8%만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는 평균 1.4회(9.6시간), 참여인원은 163.9명으로 나타남. 특성화 강사 대상 연수는 평균 1.5회(21.7시간) 참여인원은 57명으로 나타남. 양자 모두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연수 경험에 대해 유치원교사는 22.5%, 특성화 강사는 63.0%가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함.

□ 특성화 강사 실태

- 특성화 강사의 소지 자격증은 특성화 과목 관련 자격증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교사 자격증 17.1%, 중등교사 자격증 14.4%순으로 나타남.
- 담당하는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분야는 미술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 체육, 과학 순으로 나타남. 수업자료 준비의 경우 음악과 과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재를 이용하며, 미술과 체육은 직접 제작한다는 응답이 높음.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은 대부분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며, 특히 체육은 공간부족이라고 응답함.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의 출강 유치원수는 강사 1인당 2.0개, 수업횟수는 평균 9.9회, 수입은 평균 34만원인 반면, 민간 개발 프로그램 출강은 강사 1인당 유치원수 평균 1.6개, 수업횟수 평균 7.3회, 수입 평균 31만4천원으로 나타남.

나.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유아의 각 연령 발달 특성에 적합 정도를 질문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아짐.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로 적합정도에 대해서는 미술과 과학은 유아교육 전공자 중 특성화분야관련 연수를 받은 자가, 음악과 체육은 특성화분야전공자 중 유아교육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적정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횟수 및 비용에 대해 학부모는 주당 평균 2회, 주 1회 실시할 시 비용은 평균 2만원, 주 2회 실시할 시 3만2천원, 주 3회 실시할 시엔 4만3천원으로 응답하였으며, 과목별로 비슷하게 나타남.
- 종일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특성화 강사 인력풀 확대를 통한 강사지원이 26.5%로 가장 높고, 비용 지원이 22.0%로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학부모의 83.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음.

□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 음악 프로그램은 전반적(88%이상)으로 만족하였음. 내용 만족의 이유로는 유아 발달에 적합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 가장 높았음. 음악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치원교사와 특성화 강사 전체 81.3%가 변화가 있다고 답하였음.
- 미술 프로그램은 대체적(86%이상)으로 만족하였음. 내용 만족의 이유로는 6.4%가 유아발달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불만족한 이유 또한 29.3%가 내용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남. 유치원교사와 특성화 강사의 71.9%가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 체육 프로그램도 86%이상이 만족하였음. 만족 또는 불만족에 대한 이유는 미술프로그램의 응답과 일치함. 유치원교사와 특성화 강사의 78.9%가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에게 변화가 있다고 여김.
- 과학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90%이상) 만족도를 보임. 과학 내용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이유 모두 유아발달의 적합성으로 나타났음. 유치원 교사와 특성화 강사 79.7%가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에게 변화가 있다고 여김.
- 학부모들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모두 90%이상 유아가 재미있어한다고 응답함.
- 특성화 프로그램 연수방법에 대해 유치원교사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특성화 강사는 우수한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연수내용에는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연수 개선 요소로는 연수 횟수와 시간 확대(유치원교사)를, 연수 참여자 자격요건 강화와 연수내용 개선(특성화강사)을 높게 응답하였음.

5.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 기본 방향

-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질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확보 및 강사 질 관리
- 유치원 지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 유치원 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유치원 현장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나. 세부 추진 방안

-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속적 보완

- 질 높은 강사 확보 및 질 관리
-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지원
-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장명립, 서문희, 양미선, 김은영, 이윤진, 최윤경, 최은영, 장혜진, 권미경, 김명순, 김영옥, 나중혜, 문미옥, 문원자, 서소정, 서영숙, 성지현, 염명순, 오경숙, 이미정, 이연승, 이완정, 이정옥, 정미라, 조부경, 지성애, 한찬희

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목적 및 절차
2. 제1부 총론
3. 제2부 각론

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목적 및 절차

□ 목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함. 「5세 누리과정」 마련의 의의를 실현하고, 5세 담당교사가 만 5세가 다니는 교육·보육 현장에 ‘5세 누리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함.

□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담당관, 유아교육·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집필진 구성.
- 2011년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집필진 회의 진행하여 해설서 총론과 각론(안) 마련.
- 영역별 목표 검토: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해설서(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2. 제 1부 총론

가.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목적 및 절차

1) 제정의 배경과 의미

-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
- 「만 5세 공통과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임.
-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정책임.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됨.

2) 제정의 특성

- 첫째, 「5세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인성 지도를 강조하되,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5세 누리과정 전 영역에서 강조함.
- 둘째,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
- 셋째, 「5세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구분되지만 세부내용 수준은 연계

나. 5세 누리과정의 구성

1) 기본·구성방향

- 가. 만 5세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마.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 바.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2) 목적

-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목표

- 가. 기본 운동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3. 제 2부 각론

가. 신체운동·건강

1) 성격

-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기

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임.

2) 목표

-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초 체력과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임.
- 가. 기본적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나.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 다.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태도를 갖는다.
- 마.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내용 구성

-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나. 의사소통

1) 성격

-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을 즐기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사용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임.

2) 목표

- 목표는 일상에서 말과 글의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기초적 수준의 말과 글을 즐겁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임.
- 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다. 글과 글자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 라.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단어와 문장 쓰기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3) 내용 구성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내용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다. 사회관계

1) 성격

- 유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족, 또래와 함께 지내는 방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 능력과 인성을 기르기 위한 영역임.

2) 목표

- 목표는 유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정서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느끼거나 이해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
 - 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 행동한다.
 - 나.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며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 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 라. 친구, 교사, 이웃 등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
 - 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3) 내용 구성

-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다섯 가지 내용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라. 예술경험

1) 성격

- 유아가 자신의 친근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 음악, 움직임과 춤, 형태와 색 등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래와 교사, 부모, 지역사회 사람이나 작가들이 표현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가까이 접하면서 탐색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즐기며 감상하도록 하기 위한 영역임.

2) 목표

- 목표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을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심미적 태도를 지님으로써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데 있음.
 - 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예술적 요소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 다. 자연과 사물, 다양한 예술작품과 전통 예술 등을 감상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3) 내용 구성

-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내용이 제시됨.

라. 자연탐구

1) 성격

-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일상의 여러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과학적 기초소양을 기르기 위한 영역임.

2) 목표

- 목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가.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 나.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 다.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기초 지식을 알아간다.

3) 내용 구성

-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세 가지 내용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범주별로 내용 및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개발

장명림, 안정은, 백승선

1. 목적 및 방법
2.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개요
3.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절차
4.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편람 및 매뉴얼 세부 내용
5. 제 1주기와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비교

1. 목적 및 방법

- 각 시·도별 특색지표(자체지표)는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 그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하되, 국가 수준의 공통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보급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국가수준의 제 2주기 유치원평가(2011년~2013년)의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이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편람과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절차
 -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협의회’와 연계·합동회의 개최
 - 전국 유치원 평가위원 중앙 연수회 개최

2.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개요

- 목적

-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
- 기본 방침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
 - 동일 목적의 유사 지도·감독 시스템과의 중복 평가 지양
-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특성
 -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결과는 점수화·서열화하지 않고 공개하되, 재정지원과 연계
- 세부 계획
 - 평가 주관: 시·도교육청
 - 평가 대상 및 주기
 - 평가 영역 및 내용
 - 평가 방법

3.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절차

-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절차
 -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와 매뉴얼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요청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였음.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팀은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전국 16개 시·도 유치원 평가위원 100여명 대상 평가지표 및 방법 개선에 대한 텔파이조사, 자문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구성 ‘유치원 평가 제도개선 협의회’와의 합동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유치원 평가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유치원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 평가지표 가중치 및 유형화

- 각 지표에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되, 일부 중요 지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함.
 - 설립별, 규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유형화 하지는 않되, 평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 유치원 평가지표 척도의 이해
- 기본 척도 유형
 - 요소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 중요한 요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위 척도(5, 4, 3)에 배정함.
 - 요소의 중요도가 동등한 경우: 요소의 개수에 근거하여 모든 요소가 매우 우수한 경우를 5점 척도에 두고, 요소 개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따라 하위 척도 순서로 배정함. 단,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모든 요소가 골고루 잘 되고 있는 경우를 상위 척도에 배정함.
 - 설립별, 규모별 척도 구분
 - 설립별 척도 구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공립유치원의 척도 3, 2, 1에 해당하는 평정기준을 사립유치원의 척도 5, 4, 3에 배정함.
 - 규모별 척도 구분: 유치원의 학급 규모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표의 경우, 소규모(1-2학급) 및 농·어촌 지역 유치원에 대해서 평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4.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편람 및 매뉴얼 세부 내용

- 교육과정 영역
-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
 -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활용
- 교육환경 영역
- 실내·외 교육환경의 구성 및 관리

- 교재·교구의 구비 및 제공
- 건강 및 안전 영역
 -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 운영관리 영역
 - 교직원의 인사·복지 및 전문성
 -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가정·지역사회 연계 및 종일제 운영

5. 제 1주기와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비교

- 제 1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와 제 2주기 유치원 평가지표를 평가지표, 총점 및 영역별 배점, 설립유형별 지표 차별화, 지표별 가중치,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매뉴얼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 제 1주기 평가지표는 4개 영역, 14개 항목, 28개 지표, 91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제 2주기 평가지표는 4개 영역, 9개 항목, 15개 지표, 47개 요소를 구분함. 또한 유사 및 중복 지표를 통폐합하고, 교육목표 설정의 적합성에 따른 지표 추가하여 일과운영에서는 바깥놀이 강조 및 과도한 활동량을 지양하였고, 권장지표였던 종일반 지표를 운영관리 영역에 기본지표로 포함
- 총점 및 영역별 배점은 제 1주기 평가는 총점 200점으로 교육과정 영역 65점, 교육환경 영역 45점, 건강·안전 영역 40점, 운영관리 영역 40점으로 하였으나 제 2주기 평가에서는 총점 100점으로 교육과정 영역 40점, 교육환경 영역 15점, 건강 및 안전 영역 15점, 운영관리 영역 30점으로 하여 교육과정 영역의 비중을 더욱 강화함.
- 설립유형별 지표 차별화를 보면 제 1주기 평가와 제 2주기 평가 모두 국가공통지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에 대비하는 전국 공통 핵심지표이므로 지표에 차이를 두지 않음. 단, 제 2주기 평가에서는 설립별, 규모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 척도 기준을 매뉴얼에서 차별화하여 제시함.

- 지표별 가중치를 보면 제 1주기 평가는 28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제 2주기 평가는 15개 지표 중 5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함.
-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보면 제 1주기 평가는 별도의 개별 지표를 포함하였고, 제 2주기 평가에서는 지표 14. '부모교육·참여활동 및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에 한 개의 요소로 포함하여 비중은 줄이고 의미는 제 1주기 평가와 같게 유지함.
- 매뉴얼을 보면 제 1주기 평가는 평가의 방향, 지표, 기준만 간략히 제시하였으나 제 2주기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요소, 평가지표의 적용초점, 지표의 고려사항, 평가요소의 확인 내용을 제시. 특히, 평가요소의 확인 부분에서는 평가지표 및 요소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평가 지표 및 요소의 이해 제고, 점수 부여의 객관성 확보를 유도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개념 정립 방안

유해미, 김혜원

1. 서론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3. 유사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
4.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계의 재정립
5. 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그 적용을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나아가 이는 보육의 공공성이나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법적 권한과 책무 등에서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설치·운영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봄.
 - 현행 설치·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무,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과 설치·운영자 관련 실태를 파악함.

- 공공성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어린이집에의 적용을 모색함.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보육법」상 관련 규정, 유사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 실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주요 연구방법
- 설치자와 운영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에 관한 문헌연구와 유사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함.
 - 보육관련 전문가(학계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보육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실태를 파악함.
- 선행연구
- 설치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법적 권한 및 역할 배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가 다수 기관을 운영할 경우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임. 어린이집 원장은 다중 역할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3. 유사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

가.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유치원의 설치인가, 교육비용 부과,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관련 사항임.
- 유치원 원장의 책무는 원무를 총괄하며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것이며, 이외에 수업료 관련 사항과 유치원 생활기록 관리, 건강 및 급식관리 등 운영전반을 수행하도록 규정됨.

나.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설치·운영자 신고, 종사자의 임면, 지도·감독 관련 사항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시설이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지니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편성 권한, 이외의 직원임명권은 시설의 장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권한을 지님.

다.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설립 허가, 학교장 임면, 법적 책임 관련 사항임.
-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내부 사무의 통괄 권한을 지니며, 원장 이외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은 원장의 제청이나 학교장 위임을 통해 이루어짐.

라. 종합 및 시사점

- 설치·운영자 규정 사항은 설치·인가/폐지휴지 신고, 지도·감독 및 법적 책임, 임명권 관련 이며, 이와 비교하여 「영유아보육법」 경우는 이외에도 운영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대표자와 운영자 고유의 권한 및 책무를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원장의 권한은 대표자나 운영자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단 임명권의 경우는 대표자와 권한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음.

4.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계의 재정립

- 보육관련 전문가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설치·운영 관련 규정의 문제점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불일치 시 '문제 있다'는 응답은 78.2%로 나타남.
- 어린이집 대표자가 복구기관을 운영할 경우 '문제 있다'가 79.0%로 나타남.

나. 법적 권한 및 책임

- 설치인가/폐지·휴지 신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대표자 44.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모두 43.2%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냄.
- 임명권에 대한 법적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경우는 대표자와 원장 모두 66.4%, 법적 처벌 대상은 대표자와 원장 모두인 경우가 사안(설치 기준 위반, 운영기준 위반, 보육료 한도액 위반)에 따라 58.1~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다. 역할 및 책무

-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53.3%), 건강관리(72.1%), 급식 관리(63.3%) 모두에서 원장의 역할이 타당하다고 지적됨. 단 회계 관리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라. 대표자의 자격요건

- 대표자의 자격요건 부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자격요건 수준의 경우는 현행 원장의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인 51.7%로 나타남.
- 대표자에 적합한 직무로는 회계 관리 부문이 가장 높은 응답률(48.8%)을 보였으며, 대표자의 적합한 근무 형태로는 상근과 비상근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

마. 개선 요구

-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의 잦은 변경을 막고,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개선 요구로는 대표자의 자격요건 강화, 설치 후 매매 가능 기간 규제, 설치 어린이집 수의 제한, 대표자의 상근 등이 제기됨.

5. 제언

가. 기본 방향

-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을 정교화 함.
- 어린이집 대표자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함.
- 설치·운영자로 포괄 규정된 사항들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함.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책무 및 역할 분화 및 공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
- 위의 전제조건으로 대표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함.

나. 정책 과제

- 단기 방안
 -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 유사기관 및 시설에서의 대표자와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책무, 자격요건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함.
- 중장기 방안
 - 대표자의 법적 권한으로 고려될 사항은 예산 편성 부문이며, 이외의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종사자 임명권, 지도 감독 대상 등 법적 책임 사항은 현행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과 그 권한 및 책임을 공유함.
 - 대표자의 책무로서 고려할 사항은 회계 관리, 시설 관리, 이외의 보조 업무 등이

며, 이외의 건강관리 등은 현행과 같이 원장의 책무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표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되, 대표자의 영리 추구로 인한 보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어린이집 설치 개수의 제한, 어린이집 매매 가능 시기 규제 등임.

만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 연구

- 「5세 누리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

서문희, 장명림, 문무경, 양미선

1. 목적 및 방법
2. 만5세 공통과정 개요
3. 「5세 누리과정」 내용
4. 정책 제언

1. 목적 및 방법

- 정부가 2011년 5월 2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직전 1년 모든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개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개정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2010년도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비교·검토
 - 관계 부처 공무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만5세 공통과정 개발 TF'를 구성, 운영
 - '만5세 공통과정 개발 TF'에서 도출한 만5세아 공통과정 안을 가지고 2011년 8월 12일 공청회를 개최
 - 국민 홍보 및 정책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실시

2. 만5세 공통과정 개요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 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부모의 부담 실질적 경감 기대.

3. 「5세 누리과정」 내용

가. 「5세 누리과정」 구성·기본방향 및 목적과 목표

1) 구성·기본방향

- 가) 만 5세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마)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 바)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2) 목적

-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목표

- 가) 기본 운동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나. 「5세 누리과정」 구성

-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총 20개 내용범주, 62개 내용, 136개 세부내용으로 구성함.
 -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5개 내용범주, 16개 내용, 33개 세부내용으로 구성
 -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개 내용범주, 11개 내용, 25개 세부내용으로 구성
 -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5개 내용범주, 13개 내용, 29개 세부내용으로 구성
 -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3개 내용범주, 10개 내용, 22개 세부내용으로 구성
 -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3개 내용범주, 12개 내용, 27개 세부내용으로 구성

4. 정책 제언

- 향후 「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단·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 정책 제언
 - 부모 및 국민 대상 「5세 누리과정」 홍보 강화 및 원장, 원감, 공무원 등 교사

이외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 실시

- 교사 초기교육 이후 지속적 교육, 교육 대상 교사 확대, 양성교육 실시, 3급 및 3급에서 승급한 보육교사 교육 강화
-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영역별 편성 시수 및 지역이나 기관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편성·운영 등에 대한 지침 마련
- 혼합반 지침서 개발, 제시
-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과 환류·두 부처와 협력 체계 구축이 적절한 육아정책연구소 중심으로 추진

○ 중장기 정책 제언

- 도서 벽지 등의 극소인수 학급을 제외하고 점차 만 5세아 단일 연령반 구성·운영하도록 유도
- 보육교사 3급 교사에 대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담당교사 자격기준을 1, 2급에서 1급으로 강화하고 교사 경력도 함께 고려
- 「5세 누리과정」 평가체계 구축하여 주기적 평가와 환류
- 기관의 만 3, 4세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고려

보육교직원의 효율적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은설, 황미영

1. 서론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현황
3.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와 시설장 등 보육교직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음. 전문성 제고의 목적에서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재교육 과정 또는 보수교육 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함.
- 현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육업무 경력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내용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시기의 경직성 등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나. 연구내용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고 현재 보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보수교육 현황 파악과 전문가의 조언,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행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함.
- 보수교육 제도 파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면담 및 자문회의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현황

가. 보수교육 제도

- 보수교육 실시 근거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현직교육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이 포함됨.
- 직무교육에는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이 있고 이는 이전에 교육을 받고 만2년이 경과한 자가 대상이 됨. 특별직무교육에 속하는 교육 분야로서는 영아

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등 3가지가 있으며, 일반직무교육은 다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정기 직무교육과 새로이 시설장이 된 자를 위한 신규 시설장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 시기를 정리해보면 우선적으로 승급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이후 직무교육을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음. 일반직무교육과는 별도로 맡게 되는 업무와 시설의 상황에 따라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6개의 영역에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등임.

나. 보수교육 현황

- 2011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양성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이 64개 지정되어 있고 일반 대학교가 23개 지정되어 있음.
- 승급과 일반직무교육 이수자 수를 합계해보면, 2006년 22,187명이었으나 2010년은 33,817명으로 11,630명이 증가하여 5년간 52.4% 증가율을 보임.
-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40시간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급교육 80시간에 대해서는 1인당 12만원을 지원함.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2011년 중앙정부 예산은 1,248백만원임.

다. 보수교육 운영 실태

- 보수교육 강사의 특징
 - 조사에 참여한 보수교육 담당 강의자의 특징을 보면, 40~50세 사이가 46.4%로 가장 많고 40세 미만은 23.2%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교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동학 계열이 37.5%로, 유아교육 또는 아동학이 대다수임.
 - 시간 당 강의료를 보면 5~6만원이 35.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 강의료

는 4만 8천원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됨.

강사 1인당 담당 과목 수

- 보수교육 강사 1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2과목 임. 1개 보수교육 기관에서 연간 실시하는 평균 보수교육 강좌 수는 승급 및 직무교육의 경우 1회~1.4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장과 보육교사 공통으로 하는 특별직무교육이 1.7회로 가장 많았음.

출석관리 및 이수증 발급 반영 정도

- 수강생의 전체 출결관리 현황은 출석부로 호명하는 것이 56.4%로 가장 높았고 입구에서 수강생이 서명하는 것이 27.3%, 기타9.1%, 전자출결시스템이 7.3% 순으로 나타남.
- 보수교육 수강생의 출결관리가 보수교육 이수증 및 자격발급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전체 92.6%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의견은 전체 66%가 '어려움이 없음'으로 나타남.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수강생 수의 부족, 예기치 않은 수강인원 급증 등 모집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함.

수업진행 방법

- 교수방법은 전체 65.5%가 강의로 이루어지며, 사례발표 27.3%, 토론 3.6%, 시범/실습 1.8%, 기타 1.8% 순으로 나타남.

3.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와 실태, 기존 문헌들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제시함.

보수교육 교육과정 교과목의 획일성

-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현행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이 시설장이나 교사의 경력,

직위, 요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보수교육의 내용이 수강생의 직급이나 보육시설의 근무경력에 따라 달라야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의 시간부족과 대체교사 활용의 어려움

-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음. 교사의 8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보육 실정에서 볼 때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은 교사들에게 업무 과중을 부과하는 격임.

보수교육기관의 접근성

- 보수교육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있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들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함.

보수교육 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 보수교육의 이수 시간은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관점에 볼 때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보수교육 행정의 미비

- 승급이 아닌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효율화 방안

보수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

- 보수교육 인정 과목
 -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일반직무교육에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교육 영역과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의 교육과목은 보육정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가능하도록 함.
 - 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 관리가 중요하며 이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함. 관련 대학 교수나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또는 보수교

육기관에서 동일한 과목에 대한 강의경험이 있는 강사를 보육정보센터에서 강의자로 채용했을 때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후 보육교직원 일반 직무교육 대체교육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교과목의 다양화

-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6%가 보수교육 과목을 현행과 달리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보수교육 강의를 대상으로 보강되기를 바라는 보수교육 과목을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분야가 '교직원 및 인간관계론 등 소양 교육'(64.3%)이었고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 소질, 기술 교육(37.5%), 교사장학교육(32.1%), 아동인성교육 및 리더십 교육, 동화 구연/종이접기/음률지도 등 실기 교육(19.6%)이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이 필수에 더하여 인문학 강좌나 리더십 교육, 인간관계론 등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강의의 수강은 직무보수교육으로 인정해 줄 만함.

□ 보수교육 참여 시간 부족과 교육기관 접근성 해소

-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 보수교육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 평가인증 지표를 통한 관리 강화

□ 기타 증장기 방안

- 보수교육비 지원
- 보수교육 시간과 기간의 개선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최윤경, 김재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보육교직원의 보수체계 변천 및 현황
4.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실태
5.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양적 확대와 원활한 수급에 중점을 둔 보육정책 설계에 의해 보육의 질과 보육인력의 전문성 논의는 지속됨. 후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 특히 보육교사의 긴 노동시간과 낮은 처우의 지속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근속이 저해됨.
- 2011년 호봉표에 의해 4년제 대졸 초임을 기준으로 기본급여(임금+제수당)를 비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호봉 1,392,280원, 민간어린이집 최저임금 98만원 이상으로, 유사직종인 국공립유치원교사의 4년제 대졸 초임 8호봉 1,510,100원, 사회복지사 1호봉 1,531,999원에 비해 보육교사의 초임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액과 수당을 반영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짐.
- 2012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수준 공통과정 5세 누리과정으로 취학 전 보육·교육이 잠정 의무교육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영유아기 교직원에 대한 인식과 처

우 또한 이에 합당하게 변화해야하는 시기에 당면함. 또한 2011년 7월부터 근로 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 및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외근무수 당 지급이 권고되는 바,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의 시점에 보육교직원의 보수체 계가 보육의 질 제고로 귀결되도록 하는 정책적 설계가 요구됨.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체계를 분석, 진단하 여 향후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는 보육교직원 보수체 계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나. 연구내용

- 보수체계 관련요인 및 변천
-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실태
-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라. 용어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보수체계 연구대상으로서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에 국한함. 이 연구의 '보수'는 인건비 중, 기본급과 제 수당, 그리고 부가적인 지원금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며, 비임금 요인인 근무환경, 즉 보육교직원의 복무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함.
- 보육교직원 의견 조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그 에 대한 주요 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 연구 설계임.

2. 이론적 배경

가. 선행연구 고찰

- 보육교사의 급여 관련 선행연구를 보육교사 보수가 미치는 영향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급여수준 실태 및 급여만족도 연구,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력과 학력연한의 반영, 정부 인건비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임금 격차의 완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등으로 나타남.

나. 보수체계 관련 요인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교사로서의 자질은 학력과 자격(급수)에 의해 대변되어, 결과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학습성취도 증가가 큼. 교사의 학력, 자질, 자격과 같은 인적 요인이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및 보수체계와도 관련되어 있음.
- 급여수준과 보수체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실제 해당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능력과 역할임. 보육교사의 직무는 그 영역과 업무가 유사직종 비해 매우 다양하고 많음.
- 보육인력에 대한 처우는 급여와 비급여 근무환경으로 구성됨. 금전적 보수의 결정은 비금전적 처우인 근로여건 및 근로시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3. 보육교직원의 보수체계 변천 및 현황

가. 보육교직원의 보수체계 변천

- 보육교사의 '보수'는 통상 기본급, 제 수당,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지원액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 보육교사 호봉표에 의하면,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

급기준은, 초임은 6년간 약 190,000원 오름. 매년 20,000~40,000원 선에서 연간 약 3%씩 오른 것으로, 2010년에는 동결되었고 호봉 간 급여의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의 근거가 현재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나. 보육교직원의 보수체계 현황

- 그 간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은 기본급 구조가 아닌, 수당의 첨부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업 예산으로 별도의 지원액을 통해 이루어짐.
- 보육교사로 경력을 쌓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자격 승급이 될 때, 새로 원장 호봉표를 적용받아 1호봉을 받게 되는데, 원장 초임이 기존 보육교사 급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있음. 그 간 보육교사의 경력연한이 호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다. 유사직종 보수체계와의 비교

- 유사 직종인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1급), 보육교사 간 대졸 초임을 비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기준 보육교사의 초임이 동일학력 기준 유치원 교사와 사회복지사보다 적음. 유사직종의 경우 최근 수년간 각 직업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수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4.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실태

가. 보육교직원 급여현황 및 근무실태

- 조사대상 보육교직원 289명의 근무실태를 살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약 49시간 12분, 1일 평균 보육교사 9시간 24분, 어린이집 원장 9시간 48분으로 나타남. 전체 보육교직원의 1주 총 휴게시간은 평균 2시간, 1주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4.8시간으로 조사됨. 휴게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63.0% 임.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6%로 나타남. 한편, 1주 초과근무 19시간 이상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는 보육인력이 여전히 존재함.

- 호봉현황은 조사대상 보육교사 평균 6.4호봉으로 국공립·법인의 경우 7.4호봉, 민간·가정 3.3호봉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이 더 높게 나타남.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평균 13호봉 이상을 보였으며, 기관유형별, 기관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약60%가 호봉에 대해 모름/비해당으로 응답, 보육교사 호봉표와 무관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실태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월급여 평균이 약 158만원으로 조사됨. 보육교사의 보수체계는 평균적으로 기본급 약127만원, 수당 약11만5천원, 지원액 약12만7천원으로 나타남.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원장의 연간급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많게 응답됨.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급 32.1%, 비지급 53.5%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과반 이상으로 조사됨. 국공립·법인 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해당 응답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에게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고용계약 체결의 과정은 정착됨. 근무실태 관련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외에 휴게시간과 대체교사의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나. 보육교직원 급여·근무만족도와 근속의향

- 보육교직원의 급여 및 근무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고용계약서 작성 및 임금협의과정, 고용계약서 이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및 운영 등으로 3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음. 만족도가 낮은 문항은 현재 급여 수준과 임금체계, 초과근무수당, 각종 지원액 지급, 휴가사용, 근무시간 및 업무량과 같은 근무여건 등에 관한 것으로 30%이상 불만족으로 응답함.
- 보육교직원에게 근속 및 이직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직 의향 7.3%, 전직 의향 12.1%, 퇴직 의향 4.9%로 적게 응답됨. 경력을 쌓아 보육교직원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라는 근속 의향은 53.6%로 나타남. 평생직장 및 근속 의향에 임금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질문한 결과, 상관있다는 응답이 80.6%로 나타남.

5.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가.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의견

- 조사대상 보육교직원 289명에게 보수체계 개선에의 문제점 인식 및 요구도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와 원장의 급여수준 및 보수체계 변경의 필요성에 긍정응답이 각 93.3%, 83.3%로 높게 나타남. 보수체계 개선 우선순위는 1순위 급여수준(34.6%), 2순위 긴 근로시간(22.4%)으로 응답됨.
- 보육교사의 현재 월 희망급여액은 200~300만원 미만을 받기 원했음. 어린이집 원장의 현재 월 희망급여는 약 312만원으로 응답함.
-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학력연한에 따른 임금수준상승 90.9%, 지원액 및 수당보장 89.4%, 기본급 상승 86.2%, 직무/직위수당의 신설과 자격급수별·직위별 임금수준 차별화 각 84.7% 순으로 응답됨.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에서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1일 8시간 근무에 맞추어 교사 2교대 근무제(1순위), 대체교사 지원(2순위)로 나타남. 또한 유사경력(간호사, 영양사 등)의 경력인정을 달리 적용하는 의견에 찬성 92.9%로 높게 나타남.
- 보육교직원의 급여 및 비급여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관특성 및 교사 인적특성이 급여·비급여 변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

나.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효과

- 보육교직원의 급여가 상승됨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보육서비스 질과 교사 전문성의 향상 등 대부분의 효과에 대해 9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 보수체계에 학력, 자격요인 반영에 대해, '학력'에 따른 급여의 차별화로 보육교사 임금수준이 체계적·합리적으로 된다(48.5%), 보육교사 '자격'에 따른 급여의 차별화가 급수 및 자격체계의 제 기능을 유도할 것이다(50.0%)로 응답함.

6. 결론 및 제언

-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비급여 복무실태’의 개선의 병행 또는 선행이 요구됨. 특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육직무의 안정성을 위해 투담임제 및 팀티칭제 도입이 필요함.
- 둘째, 보육현장에 보육교직원의 급여체계의 구성, 즉 ‘임금구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연봉제 개념의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은 구체적인 급여체계의 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초과근로시간 및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을 주므로, 호봉제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기본급+수당의 구조를 「기본급+직무급+직능급」으로 구분 제시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급여체계의 기본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임금수준 향상을 다양한 채널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학력과 자격급수’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호봉체계에 반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동기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체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장 호봉의 초임수준을 상향 조정함. 임금구조의 조정에 있어 기본정률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성하고 보육인력의 고유한 직무분석을 통해 이에 근거한 직무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경력연한에 따른 임금 인상 외에, 학력과 신규직무의 습득, 자격의 취득을 통해 호봉승급을 앞당길 수 있는 보수체계를 구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직무능력 배양 및 전문성 제고의 동력을 임금체계 안에 포함함. 이는 보수교육체계의 확대, 자격검정 및 국가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인력관리개발 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함.
- 넷째, 어린이집 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른 근로여건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인건비지원기관의 근로환경과 급여체계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정부가 관여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유사직종에 대한 보육경력인정의 비율을 재검토하여 제한적 인정 필요.
- 여섯째, 국가수준의 1급 자격시험(또는 검정체계)의 도입으로 신규교사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과거 경력연한이 호봉에 반영되지 못한 현직 교사들의 경우 1급 자격에의 재검정을 통해 누락된 경력연한이 일정급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 1. 서론
- 2.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수요·공급
- 3. 정책제언

1. 서론

- 최근 어린이집의 인가제한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매매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이 우려됨. 어린이집 매매의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집 설립이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지역의 지역 내 적정인원을 초과해 과잉 공급되면서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인가제한을 하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 대표들이 권리금으로 붙여 인가증을 매매하고 있음.
 -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다 보니, 아동 허위등록이나 무자격 보육교사 고용,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공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본 연구는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설치·인가의 시·군·구별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어린이집 설치방안을 제안하고자 하고는 데 있음.

2.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수요·공급

- 인가 제한으로 어린이집 매매 성행으로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설치·인가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가 제한 기준 부적절
 - 특정 지역에서 보육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고, 동시에 어린이집 현원이 어린이

집 정원보다 작으면 인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이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인가제한 지역이 됨.

- 또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므로 시설 공급이 낮아서 수요율이 낮은 지역은 제한 당시 수요와 공급 수준으로 고착되는 상태에 놓임.
- 보육 공급은 대체로 단순한 인구수 대비 보육정원 수로 산출하고 시설의 서비스 수준별 공급 실태는 고려하지 않음.
- 인가 제한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도한 공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므로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통한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한다는 문제가 있음.
- 사전 상담제도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의 보육 수요, 공급상황을 알려서 설치 희망자의 신청 결정을 돕기보다는 어린이집의 인가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임대시설 허용 및 부채 기준이 부재함.
 - 임대시설은 보육료의 일부를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교사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시설 투자부분에서도 소극적이므로 보육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
 - 시행규칙으로 시·군·구에서 설치 인가 시 건축물 대장등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용 가능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어린이집 인가제한에서 수요율이 가장 중요함.

- 보육수요 추계 방식은 보육수요에 대한 관점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2004년과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에서는 보편적 보육이용희망률에 기초하여 영유아 보육수요 규모를 추계하였음.
- 영아의 중기 보육수요는 2009년에 44.1%로 2004년 32.6%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유아는 2004년 46.8%에서 2009년 44.3%로 다소 줄었음.
 - 지역별로 보면 영아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유아는 중소도시에서만 조금 증가하였고, 대도시, 읍·면 지역 모두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별 지역 규모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0세아와 1세아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2세아는 증가 정도가 0, 1세아에 비해 작음.
 - 유아에서는 3, 4, 5세 대체로 보육수요가 줄었으나, 5세아 중소도시에서만 일부

증가하였음.

- 조사된 230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설치 인가를 제한한다는 비율이 34.3%로 79개 시·군·구이고 42.6%인 98개 시·군·구가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0%인 53개 시·군·구는 제한하지 않고 어린이집 설치를 인가한다고 응답하였음. 시·군·구의 80%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함.
- 적용하는 영아 보육수요율은 최소 30.2%에서 최고 85.0%까지임.
 - 전국보육실태조사 연구에서 추정한 중기 영아 보육수요율이 2004년 32.6%, 2009년 44.1%임을 감안한다면 다수가 적용하는 42.5%가 2009년 수요율에 근접함. 그러나 상당수 시·군·구는 낮은 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적용하는 유아 보육수요율은 최소 29.4%에서 최고 87.4%까지임. 최고는 경기도 소재 지자체임.
 - 전국보육실태조사 연구에서 추정한 중기 유아 보육수요율이 2005년 44.3%, 2009년 44.1%이므로, 다수가 이 수요율에 근접하고 있으나 63%도 상당수임. 영아 수요율과는 다르게 상당수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어린이집 설치시에 단순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개선이 필요함.
- 보육수요율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함.
- 사전상담제도는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함.
- 보육수요율 기준 인가 제한을 금지함.
- 어린이집 설치 및 대표자 변경 기준을 강화함.

부 록

부록. 2011년도 연구과제 총괄표

부록. 2011년도 연구과제 총괄표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	육아지원인력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녹색성장시대 육아지원기관의 대응방안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일반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 분석(III)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아동패널 2011
수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활용도 제고 방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개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개념 정립 방안
	만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 연구 - 「5세 누리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보육교직원의 효율적인 보수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수탁처
수탁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효과 연구	한국여성재단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비교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공립유치원 신설 소요경비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2차 시범 운영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만 5세 교육·보육 과정 운영 방안 연구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성과 전시·우수사례 발표	
	유치원 100년사 특별기획전	
	교원평가 이해 제고 자료 제작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 - 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교육개발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자료 2012-01

2011 연구과제 요약집

발행일 2012년 1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ation

www.kicce.re.kr